

통영한산대첩축제 60년사

제4장

나와 함께했던 한산대첩 이야기

한산대첩기념축제 육십주년 소회

강기재

2021년은 통영이 한산대첩기념축제를 시작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때를 맞춰 ‘한산대첩기념축제 60년’사의 발간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한산대첩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년 칠월 팔일, 견내량 해안에 머물고 있던 일본 수군을 한산도 앞 바다로 유인하여 학익진 전법으로 궤멸시킨 청사에 빛나는 대승첩이다. 지금도 승리의 북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들려오는 것 같다. 이 전쟁의 승리로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조선은 되살아났으며, 일본 수군은 남해를 거쳐 서해를 통한 한양 진입의 바닷길이 막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통영이 한산대첩을 기념하고 대대적인 축제를 개최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통영의 역사는 한산대첩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때까지 통영은 지도상에서 이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은 그저 변방의 한적한 바닷가 아주 작은 어촌 마을에 지나지 않았다.

이 전쟁의 승리로 한산도는 국토방위의 중요한 요새지가 되었고 최초로 삼도수군을 관할하는 통제영이 설치되었으며 아울러 통영이 삼백 년 통제영 문화를 꽃피우는 발판이 되었다.

필자는 지금부터 육십 년 전에 개최된 제1회 한산대첩기념축제에 직접 참가하였다. 통영상고(동원고 전신) 3학년 봄이었다. 당시 행사의 주역은 거의 모두 통영 시내 5개 고등학교(통영고, 통영상고, 통영수고, 통영여고, 충렬여상) 학생들이었다. 처음으로 개최되는 범시민적 행사에 각 학교 전교생이 참가하여 개인별 역할대로 행사에 임하였다. 직접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진행 요원 또는 교통정리 요원 등으로 선발되어 행사를 도왔다. 대학 진학 또는 취업을 위하여 한창 공부에 열중할 때였지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우국충정을 기리고 한산대첩의 승리를 기념하는 역사적인 축제이기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하였다.

어느덧 까마득한 육십 년 전의 일이라 기억이 제대로 떠오르지 않지만 그때를 잠시 회상해 본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군점 행사가 세병관 마당에서 거행되었다. 당시 관심의 대상이었던 이순신 장군 역을 누가 하였는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통영고 통영상고 통영수고의 총학생회장 중에서 선발하였는데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통영수고의 총학생회장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

나는 군점 행사 때 이순신 장군의 바로 뒤에서 여덟 명의 학생들과 한 조를 이루어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오방기를 들었으며, 우리와 함께 한복으로 곱게 단장한 팔선녀 여학생들과 함께 열을 맞춰 시내를 행진하였다. 해군 군악대와 취타대를 앞세우고 화려한 복장을 한 조선 수군의 군점 행렬 재현은 통제영 폐영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한 구경거리의 백미였다. 행렬에 참여한 학생들은 저마다 뿌듯한 자부심을 가졌으며, 이를 구경하기 위하여 육지의 오지마을이나 섬마을 할 것 없이 어린아이 노인 가리지 않고 하루 일을 제쳐두고 시내로 나왔으니 말 그대로 거리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군점 행사 이외에 남망산공원에서 개최된 제1회 전국학생백일장대회에도 참여하였으며, 야간에는 우리 학교 악대부의 연주에 맞춰 전 학년이 초롱불을 들고 교가와 응원가를 부르며 시내를 행진하여 축제 분위기를 돋우었다. 참으로 오래전의 일이지만 그때의 상황이 희미하게 떠오름은 다행이기도 하다.

제1회 축제 참가 이후 고교 졸업, 군 입대, 취업 등으로 십 년 넘게 객지 생활을 하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직장 업무로 축제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러다 정년퇴직 후 시조창 입문을 계기로 십여 년 전부터 축제 행사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음은 어찌 행운이라 하지 않으리오. 축제 기간 중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한산도 제승당 수루에서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며 읊은 시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를 통영정가회 회원들과 함께 매년 창으로 부르고 있음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이기도 하다.

고향인 한산도 앞바다에서 거둔 대승첩을 기념하는 제1회 축제에 직접 참여한 이후 고회를 지나 60주년이 되는 올해의 축제에도 참여하게 됨은 크나큰 보람이 아닐 수 없다. 내 인생의 회갑을 맞이한 것처럼 기쁘기 한량없다.

나라와 겨레를 구한 한산대첩축제가 올해로 회갑이 되다니 많은 세월이 흘렀다. 축제 개시 초창기인 제2회와 5회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만큼 국가적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회를 거듭함에 따라 질적 양적 성장을 거듭하였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전 시민이 합심하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정신을 받드는 지역축제로 확고한 뿌리를 내리게 만들었다. 아울러 정부 지정 우수축제로 지정받기도 하였다. 이제는 미래를 향한 전 국민적 축제로 발전하길 기대하여 본다.

축제 60회에 이르기까지 대를 이어 최선을 다한 집행부 임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찬사를 보낸다.

한산대첩축제를 주최하는 한산대첩문화재단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한다.

* 수필가, 시조시인, 한국수필문학작가회 이사, 한국예총통영지부 회장

나와 함께했던 통영한산대첩축제 이야기

조석래

한산대첩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통영수산고등학교에서는 거북선을 만들기로 했다. 해군에서 기증 받은 실습용 쾌속정을 이용하기로 했으나 고장이 나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것이라서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을 하면서 여럿이 함께 며칠을 기름옷 걸치고 날밤을 새웠다. 엔진이 연기를 힘차게 뿜어내면서 덜덜거리기 시작하자 누구 없이 모두 합성을 질렀다.

그리고는 서투른 솜씨지만 거북선 모양의 덮개를 만들어 쾌속정 위에 씌웠다. 제법 근사한 거북선 하나가 탄생되었다. 그러나 시운전을 하는 동안 몇 번씩 고장이 났고 첫 항해도 순조롭지 못했다. 거북선 입에서 연기를 뿜어내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배 안에서 장작불을 피우다 보니 연기로 가득 차 도저히 눈을 뜰 수 없는 촌극도 빚어졌다.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니었다. 행사 당일에는 가다가 고장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행운을 믿고 출발은 했지만 동호만으로 가는 동안 나폴리에서 한 번, 서호동 앞 등대 옆을 지나다가 또 고장이 나서 모두가 땀범벅이 되었다. 고생 끝에 그래도 동충 선창에 닿은 것은 군점이 시작된 한참 후였다.

군점 행사를 위해 수없는 날을 방과 후에 묶어 두어야만 했고, 친구들은 수군 복장을 하고서 땀 흘리며 고생하면서도 이 행사를 주도하고 있다는 자긍심으로 눈을 부릅뜨고 이순신 장군의 부하인 것처럼 시가지를 행진했다. 세병관에서의 서투른 행사 진행에도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한 우리들은 최고의 충무공 후예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당시 세병관은 지금의 모양과는 많이 달랐다. 약간은 고전적이고 고풍스러운 정취를 지니고 있었다. 단청도 화려하지 못했고, 지붕은 기왓장에 이끼가 끼어 있었고 한쪽 귀퉁이가 무너져 있었다. 그러나 한산대첩기념제 전 군점 행사 당일만은 최고로 화려하고 최고로 웅장스러운 수군 복장을 한 통영수산고등학교 학생들로 세병관을 가득 채웠다. 또 이충무공의 호령을 듣는 장면을 연출하여 많은 박수도 받았다. 비록 정제된 행사는 아니었어도 참으로 인간적이고 예스러움을 지닌 품격 있는 행사였다고 자부한다.

이렇게 제1회 한산대첩축제를 치르고 이듬해 제2회 축제에도 동참하여 감동적인 추억을 쌓았다. 2회 축제는 사전 준비도 철저했고 단점도 많이 보완하여 무척 세련된 행사로 발전하였다.

한참을 지나 제39회 대회 때 출향 인사 초청이 있어 이 행사를 체험하는 영광을 얻었다. 그때의 느낌을 한산신문에 다음과 같이 게재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늘 지나온 과거의 일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기도 하고 후회도 하게 된다. 이번에 개최된 한산대첩

기념제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전야제의 다양하고 화려한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 식의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시민들을 보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참여하는 행사로 승화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외형적으로는 많은 투자로 축제 분위기 형성에 성공한 듯 보였지만 사실상 내실이 없는 행사가 아닌가 싶어 아쉽기 그지없다.”라고 썼다.

축제란 말 그대로 개인 또는 공동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결속력을 높이는 사건이나 시기를 기념하여 의식을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볼 때 통영한산대첩축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을 기념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 고장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그 의의가 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적 행사로 승화시키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통영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범시민적 축제가 되어야 한다. 통영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행사라면 그것은 이미 국가적으로 각광을 받기는커녕 축제로서의 의의조차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통영사람들이 모두 참여하여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고 평가하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통영한산대첩축제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사를 추진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해야 하겠다.

한편 휴가철에 개최하여 관광객이 많아진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참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휴가는 통영사람들에게도 극히 필요하다.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통영시민들 모두가 휴가를 반납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 특색 없는 문화 잔치, 지리적 이점을 살리지 못한 맥 빠진 행사, 고증도 잘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이고 일과성 행사로 끝나고 마는 한산대첩 모의행사, 통영 특산물이나 각종 문화 행사들이 섞여서 범벅이 되어 따로 개최하는 것보다 못하게 되는 점, 전야제가 열리는 강구안은 축제 분위기라기보다는 오히려 복잡한 도시 뒷골목의 먹거리장터를 방불한 점 등은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동네마다 한산대첩 기념탑을 세우고, 상가에는 기념 장식을 내걸고, 시민들의 가슴에 축하글 리본을 하나쯤 달았으면 좋겠다. 군점, 함정 공개, 불꽃놀이, 초대가수 공연 등 대형 외곽 행사보다는 누구나 한 번쯤 이순신 장군의 갑옷도 입어보고, 칼도 허리에 차 볼 수 있는 체험이 더욱 값지지 않을까. 그리고 거북선 안에 들어가 노를 저어 볼 수 있는 행사도 있었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통영한산대첩축제의 의의를 살리려면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 개최 장소는 따로 마련할 필요 없이 공설운동장, 각 학교 운동장, 시민문화회관, 체육관이면 족하다. 엄청난 재원을 들여 가설무대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또 한산대첩 모의 현장은 극화하여 관광상품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계적인 대해전사를 갖고 있는 통영은 이순신 장군이라는 큰 자산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세계화를 위한 한산대첩 기념축제가 될 날을 기대해 본다.

* 문학박사, 시인, 국문학자

작은 이야기

김혜숙

「통영한산대첩 60년사 편찬」 원고 청탁서를 받아 놓고 한동안 망설였다.
딱히 드러낼 만한 것이 없어 어려웠고 하찮은 글 조각에 불과할 것 같아 외려 고통스러웠기에 빠르게 이별
하고 스치는 일상 속에서 옛일을 끄집어내어 볼 뿐인데 그것이 더욱 어쭈잡게 여겨지기도 해서다.
이미 멀리 사라져버린 곱던 나를 불러내어 만나보는 기분으로 부끄러운 글을 끄적거리려 보려 한다.
장롱 서랍 한구석에 보관된 나를 데리고 나올 수밖에.
대학을 졸업한 그해 앓던 고교교사이던 나는 통영고등학교 남학생 네 명을 데리고 한산대첩기념제전 백일
장이 열리는 충렬사 경내로 향해 갔다.
화창한 가을날이었다. 가는 동안 나의 중·고교 시절의 백일장 얘기도 해 주면서- 교내·교외 대회에서 개최
했던 크고 작은 백일장들, 소풍 속에서도 개최됐던 백일장 등-.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국어선생님의 인솔로 남망산 광장에 올라 ‘탑’을 시제로 받아 허둥지둥 시간에 쫓기
듯 미흡한 마음으로 제출했던 ‘한산대첩기념제전’ 백일장에서 딱 한번 ‘차상’의 성적을 거둔 것 외에 일곱 번의
장원상을 차지한 얘기도 해주며 음악교사인 내가 국어교사의 역할을 대신했던 것이다.
백일장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구석진 곳에 자리 잡고 앉아 있는데, 그중 한 학생이 대학 일반부 참
가 용지를 갖고 와 내밀며 기다리는 동안 선생님도 시를 써 보시라고 했다. 망설이다가 시제인 ‘산’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산

「나산(裸山)의 하룻밤
시원(始原)의 숲을 여는 달빛…」

시의 문장은 그 이상 기억하지 못한다.
어느 날 일기장 등을 모두 태워버리면서 그 시(詩)도 사라졌다.
대회의 결과는 그날 오후 시청 앞 게시판에 공고할 것이라고 했다.

나쁘지만 많은 성적이길 바라며 결과를 은근히 기다리던 내게 저녁때가 되어도 소식이 없어 후회롭고 우울했다.

혼자 외롭고 심란해서 꿈작도 안 하고 울적해 있는데 저녁때쯤 아래층 현관에서 통영여고 한 제자가 이층을 올려다보며 소리쳤다.

“선생님, 선생님이 ‘장원’으로 뽑혀 시청 앞 게시판에 붙어 있는데 안 가보고 뭐 합니까?” 그 순간, 얼마나 환희롭고 기뻐던지.

고였던 괴로움이 짝 사라지고 날 듯이 가벼운 기분으로 바뀌었다.

교사로서의 체면과 자존감이 치솟아 행복해졌다.

다스릴 수가 없는 실망과 부끄러움으로 괴로워하고 있었기에,

시청까지는 얼씬도 하기 싫어 붙어 있다는 이름은 확인하지도 않았다.

여덟 번째 ‘장원’ 상의 성취감은 실로 큰 것이었다.

시상식은 지금의 태평천주교회 본당 일층 강당에서 있었는데, 그곳은 당시 클래식 음악감상실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용하던 장소였다. 해설도 듣고 감상하던 곳이다.

그날 백일장 시상식에는 서울에서 오셨다는 평론가 선생님이 계셨는데 진한 감수성과 시상의 탁월한 묘사 등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평론을 잊지 못한다.

상장과 함께 수여된 큼지막한 시티즌 손목시계 하나, 내 손목에서 오랫동안 멋지게 빛나던 것을 시인으로 살게 된 시의 마중물로 여긴다.

이제는 멀리 사라진 발자국에 불과할지라도 60년사에 섞일 작은 흔적인 줄 알고 다시 펴 만나보는 중이다.

멈춰 있어도 가고 있는 나만의 시계, 작은 나의 이야기 하나를 한산대첩축제 60년사의 자취 속에 새겨 놓으며 고통 받는 이 시대에 누가 되지 않길 빈다.

덧붙여 승전고를 올리듯 활기찼던 각 초등학교에서 진동하던 응원가 소리, 열정적인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가르침을 기억한다.

통영의 르네상스 시절, 학교마다 치르던 예술제, 독창회 등 수준 높았던 그 분위기는 이 불안한 시대에 그림고 그리운 것으로 남아 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통영의 힘과 정서에 보잘것없는 글귀가 누가 되지 않길 빈다.

* 시인, 『현대문학』 등단, 전 통영문인협회장

첫 한산대첩을 돌아보며

최 동 완

고향을 떠나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온갖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친근감이 생기면 서로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 것이 다반사다. 나는 “통영”이 고향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그럴 때마다 통영은 “이순신 장군의 충절이 어리고, 빼어난 문인 예술인을 배출한 아름다운 예향(藝鄕)”이라며 부러워하는 대답을 듣곤 한다. 대개의 사람이 그러하듯이 자기 고향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고 애뜻하지만, 객지에서 통영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뿌듯하면서도 통영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매사가 조심스럽다.

통영(統營)은 임진왜란(壬辰倭亂) 당시 삼도수군(三道水軍)통제영(統制營)이 있었던 곳으로 통영이라는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되었으며, 한때 충무시(忠武市)가 되었다가 다시 통영시로 환원되었다. 따지고 보면 충무도 이순신 장군의 시호(諡號)인 충무공(忠武公)에서 비롯되었으니, 통영은 태생부터 이순신 장군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그분의 정신과 혼이 속속들이 깃든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동피랑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서 있는 남망산을 보고 자랐으며, 통영국민(초등)학교에 입학하고부터는 6년 동안 우람한 세병관을 보면서 등교했다. 지금은 학교도 옮겨가고 세병관 일대가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되었지만, 그때는 교실이 부족하여 세병관 안에 칸막이로 만든 임시 교실에서 공부하기도 하여 세병관의 정기를 듬뿍 받고 자랐다. 중학생이 되면서 동피랑 아랫마을 남망산 기슭으로 이사하여 그곳에 살면서부터는 거의 매일 이른 아침에 코리라는 애견(愛犬)을 데리고 남망산에 올라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거수경례를 올리고, 맨손체조를 한 뒤에 집으로 내달려와 아침을 먹고 판데굴을 지나 미륵산 밑에 있는 통영중학교로 걸어 다녔다.

통영에서 한산대첩(閑山大捷)기념제전이 처음으로 열렸던 때가 1962년이었으니 내가 통영중학교 2학년이었던 때다. 조선 수군 복장을 한 고등학생 형들의 가장행렬이 인상적이었고, 남망산 올라가는 길목에 있던 우리 집 앞은 하루 종일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붐볐으며, 강구안을 따라 장사진을 쫓던 온갖 장사치와 야바위꾼들도 난생처음 보는 신기한 구경거리였다. 나는 그해 중학교 봄소풍 때 백일장에서 입상한 연유로 학교의 대표 중 한 명으로 발탁되어 제1회 한산대첩기념축제 백일장에 나갔으나 기대와는 달리 입상하지 못했다. 각지에서 모여든 실력파들에 비해서 나의 실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통감하고, 어릴 적부터의 꿈인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객지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 취직하고 가정을 이루어 국내외를 오가며 살아가느라 바쁜 와중에도 그날의 낙방과 각오를 결코 잊은 적이 없었다. 덕분에 늦은 나이에 등단하여 시인이 되고 시집도 내었으며, 어릴 적부터 익혀온 서예도 결실을 이루어 한국서도협회의 초대작가가 되고 한국서도대전의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스스로를 남망산인이라 자처하며 통영 출신 예술인이라는 자부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계속 정진하고 있다.

제1회 한산대첩기념제전이 열렸던 1962년은 5·16군사정변을 겪은 다음 해라 우리는 학교에서 매일 혁명 공약을 달달 외워야 했고, 새마을운동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아침마다 빗자루를 들고나와 집 앞과 동네를 깨끗이 쓸었다. 그리고 군사정부는 특별히 이순신 장군의 구국정신을 고양시켰으며 한산대첩기념제전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처음 한산대첩기념제전이 열렸던 해로부터 어언 60년이 흘렀다니 참으로 세월이 무상하고 세상은 무섭게 변하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본다.

남망산 꼭대기에 서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내려다보고 있는 한산도 앞바다는 장군이 학익진(鶴翼陣)을 벌여 대승을 거둔 한산대첩(閑山大捷)의 현장이며, 한산대첩은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의 하나로 1592년 음력 7월에 일본 수군을 대부분 격파하여, 육지에서 잇단 패전으로 사기가 떨어진 조선군에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으며, 조선 수군이 남해안 일대의 제해권을 확보하고 승승장구하던 왜군에게 위협을 주어 불리했던 전세를 유리하게 전환시킨 역사적인 대첩이라는 것을 통영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온몸으로 느끼며 배웠다.

임진왜란으로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울 때 이순신 장군께서 진중에서 읊은 시-진중음(陣中吟) 제1수를 보면 - “하늘 같은 임금은 난을 피하여 서문 밖으로 멀리 나가시고(天步西門遠), 왕자들은 북쪽 땅에서 위태롭다(君儲北地危), 외로운 신하는 나라를 걱정해야 하는 날이며(孤臣憂國日), 장사들은 공훈을 세워야 할 때로다(壯士樹勳時), 바다에 맹세하니 물고기와 용이 감동하고(誓海魚龍動),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알아주는구나(盟山草木知), 원수의 무리를 모두 멸할 수 있다면(讐夷如盡滅), 비록 죽음이라도 사양하지 않겠노라(雖死不爲辭).” 이 시에서 보듯이 누란의 위기를 당하여 임금은 달아나고 나라를 지킨 것은 우국충신(憂國忠臣)인 장군과 장군을 따르는 백성들이었다. 삼도수군통제영이 있던 통영을 중심으로 경상 우수영과 전라 좌수영에 이르는 한려수도의 곳곳에서 수군은 바다에서 죽을 각오로 싸우고, 백성들은 육지에서 깃발을 흔들고 함성을 지르며 왜적을 교란하여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그 정신이 오늘까지도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장군께서는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패주하여 달아나는 왜적을 섬멸하다 적의 흉탄에 맞아 난중에서 돌아가셨다. 죽음도 불사하고 나라를 지켜내신 이순신 장군께서는 왜적과 싸운 23번의 해전(海戰)을 모두 승리로 이끌어 세계 해전사에 유례가 없는 난세의 영웅이시니, 그분의 피로 얼룩진 구국정신이 곳곳에 깃든 이 땅에 태어나고 자란 것이 얼마나 큰 정신적 자산인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한편 내륙 곳곳에서도 나라를 구하고자 의병(義兵)들이 일어나 왜병들에 맞서 싸웠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정규군인들 간에 전투를 벌여 승패를 가르면 끝나는 것인데, 정규군이 패해도 의병들이 일어나 항복하지 않

고 끝까지 싸우는 백성들이 있는 우리나라야말로 불가사의한 나라라고 할 것이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삼성전자가 일본의 소니를 앞설 수 있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는가? 오늘날 K-Pop을 앞세워 세계를 열광시키며 한류를 확산시키고 있는 아이돌 그룹들과 영화인, 예술인, K-Beauty, K-Food, 철강, 조선, 기계, 자동차, 전자, 화학 등 산업과 문화의 각 분야에서 한국의 문화와 기술이 세상을 선도하고 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나라의 수반(首班)이 누구이든 이순신 정신으로 무장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병처럼 활약해온 결과 우리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이 대를 이어 발전과 혁신을 거듭하는 한, 대한민국의 장래는 밝다고 할 것이다.

나이 들어가며 세상 곳곳을 여행하면서, 통영을 품은 한려수도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포근한 곳임을 새삼 알게 되었고, 또한 통영에서 전승되어 온 12공방의 독보적 기술과 오광대 춤사위에 서린 독창적 예술정신을 이어받아 필사즉생(必死則生)이라는 각오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통영인들을 도처에서 만난다. 통영에서 태어나 통영을 지키며 통영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객지로 나가 더 큰 세상을 경험하고 세계인들과 교류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통영의 정신과 예술혼을 살찌우는 분들과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며 통영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끝을 맺는다.

2021년 여름 남망산인(南望山人) 지안(之岸) 최동완(崔銅完)

* 재경통영출신 시인 및 서예가

나의 학창시절 기억 속의 통영한산대첩

진 규 영

세계 4대 해전 중 가장 화려했던 해전인 통영한산대첩을 기념하는 행사가 올해로 60회에 이른다니 대단한 역사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통영은 시의 이름이나 역사를 말할 때 이순신 장군을 제외하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선조 37년 삼도수군통제영을 지금의 통영으로 옮겼다는 역사적인 사실 때문이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뇌리에 통영이 깊이 새겨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을 포함한 애국의 역사가 중심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더라도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을 시기인 60년대 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통영의 자존심인 이 행사를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이끌어 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먼저, 그동안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한산대첩기념사업회에서 두 권으로 된 화보집을 보내왔다. 기록을 보니 1962년이 이 행사가 시작된 해인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네. 내 눈에 흑백 사진 속 세병관의 과거 모습이 친숙하게 다가온다. 당시 집이 문화동이어서 통영국민학교서 철봉도 하고 자주 들러서 놀던 곳이었는데,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양하고 많은 걸 보니 당시로서는 매우 중요한 행사로 출발했나 보다. 이순신 장군의 활동 시절을 재현하려고 노력한 흔적들도 보인다.

나의 경우,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 바로 통영을 떠나게 되었고, 50여 년이 지난 요즈음에야 다시 고향인 통영을 찾게 되다 보니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았다. 가물거리는 과거의 생각을 조금씩 정리하는 데에 보내준 화보가 도움이 된다.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행사 참여에 의미를 둔 시내 행렬에 참가했던 기억이 난다. 큰 도로를 따라 오른쪽과 왼쪽 한 줄씩 서서 약 반나절 동안 행진을 했다. 요즘 같으면 임진왜란 당시의 병졸 복장을 갖추었겠지만, 그 당시는 그냥 교복 차림으로 참가했던 것 같다. 그래도 길 가는 시민들이 쳐다보고 있어서 제법 병사처럼 당당하게 걸어 보려고 노력했다고 생각된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행사 자체에는 관심이 없이 단지 수업을 하지 않게 되니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참가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초기 화보에서도 간혹 학생들이 교복차림 그대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니 내 기억이 맞겠지.

고등학교 1학년 때로 보이는 또 한 가지 기억이 있다. 한산대첩의 주요 행사는 아니었다고 생각되지만 통영 시내의 각 학교들에서 예능과 관련 있는 학생들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예회 같은 행사를 개최했는데(당시 공연장소는 충무극장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요즘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1학년 동기와 함

께 출연했던 기억이 있다. 지금은 그 친구의 이름도 기억 못하지만, 곤봉 돌리기의 명수였던가 보다. 학교에서는 그 친구의 출연을 권유하고 출연을 확정했나 보다. 그런데 무대에서 그냥 곤봉만 돌리는 것이 다소 싱겁게 느껴졌는지 곤봉 돌리는 동안 그 속도에 맞추어 나에게 피아노로 즉흥 연주를 해 달라는 것이었다. 상상 밖의 제안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음악을 접할 기회가 많아 오르간, 피아노 같은 건반악기의 연주는 어느 정도 습득이 되어 있을 때였으므로 어렵지 않게 승낙하고 리허설을 시작했다. 4분의 4박자로 약간 느리게 시작하여 점차 빠르게 진행되다가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끝나는 그런 퍼포먼스였다. 공연 당일, 낮과 밤으로 나누어 두 번 공연이 있었는데 대박치는 공연이 될 줄이야. 갑자기 그 친구는 무대의 조명을 모두 끄게 하고 곤봉 끝에 부착한 기름 먹은 솜에다 불을 붙여 곤봉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것도 음악에 맞춰서. 요즘은 간혹 TV를 통해서 특이한 장면들이 자주 소개되니 별로 놀랄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60년대인 데다 통영처럼 조그만 도시의 극장 공연에서 쇼 같은 공연을 만들었으니... 감감한 객석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공연 후에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던 기억이 난다. 사실, 이 공연의 주역은 곤봉을 돌린 그 친구였지만 성공적인 공연에 도움을 준 것 같아 나도 기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 공연 당일에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이 연결된다. 공연 후 정관호 음악선생님-지금은 작고하신 분-이 무대 뒤로 찾아오셔서 “음악전공 작곡을 해보지 않겠나?”라고 권유하셨다. 그때부터 정식 수업에 들어간 음악수업이 내가 음악인으로 살아가는 출발점이 된 셈이다. 나에게 이렇게 귀중한 사실들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니... 생존해 계실 때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그동안 나도 너무 무심했구나... 순간, 피아노를 직접 지도해 주시고 나의 작품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해 주시기도 했던 그분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다가온다.

통영을 떠난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잊지 못했던 고향 통영. 음악인 그중에서도 작곡가로서 살아온 나의 인생 역정을 음악 활동만으로 정리해 보면 대단히 다양하고 화려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뒀안길에 홀로 고학하면서 일구어 온 나의 힘들었던 여정에서 자주 찾을 수는 없었지만 언제나 마음의 고향으로 통영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데 모른다. 남몰래 혼자 찾아와서 과거 학창시절 때처럼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다 회 한 접시와 소주 한잔하고 떠난 적도 자주 있었다. 나이가 들어 이제 다시 통영시민으로서 생활하고 있지만 아직은 적응하기가 서툴러서 추억 속의 통영을 재현하는 것은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다.

그나마, 이번 한산대첩 60주년을 맞아 나에게 원고를 의뢰해 주신 덕분에 마음속의 고향으로만 여겨졌던 통영을 화보로 확인하면서 기억 속의 통영이 현실로도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듯하다. 한산대첩이 학창시절 나와 의 인연이 작으나마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올해 60주년으로 개최되는 한산대첩 행사는 먼발치서나마 꼬옥 지켜봐야지. 직접 관계없는 사소한 행사라도 찾아가 봐야지. 올해의 한산대첩 행사를 준비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통영국제음악재단 부이사장

추억의 한산대첩축제

최 홍 립

예나 지금이나 특별한 뜻이 있는 날을 기념하여 치르는 축제는 큰 잔치이며 그 지방의 독특한 문화행사 중 하나일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 내가 한산대첩기념축제와의 인연은 1966년 제5회 한산대첩제전일 때 남망산 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이었다. 그때 나는 고교 2학년으로 각각의 학교에서 몇 명씩 차출되어 참가하는 학생 중 한 명이었다. (당시엔 운이 없는 사람만 차출되었음) 제3공화국 대통령이 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그때 대통령께서 이 먼 곳 작은 지방행사까지 참석한 걸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셨다는 분이 이순신 장군이였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았다. 축사는 짧았고 대통령의 바지 길이도 축사보다 더 짧았다. 또 바지 주름도 각 세워 잡혀 있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 기억과, 그 다음 날 야간 가장행렬에 참가한 일이 아련히 떠오른다. 가장행렬은 무슨 거창한 행사가 아니라 그냥 탈 쓰고 카우보이 복장도 하는 등 일상적인 옷차림과는 다른 가면 복장을 하고 줄지어 걷는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 30여 년 후 정확히 1994년 나는 제33회 한산대첩기념제전에 삼도수군통제사 역할로 화려한 가마를 탔다. 통제사 행렬은 통제사가 세병관에서 군점을 마치고 수조를 하기 위하여 세병관에서 병선마당까지 행차하는 것이다. 나는 이 행사에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 장군이 되어 조선시대 통제사 의관과 수염으로 가장하여 지휘봉을 휘두르며 수대 학생으로 이루어진 수병 십여 명이 메는 웅장한 가마에 올라 수많은 시민의 환호를 받으며 행차했다. 앞뒤로 취타대, 사물놀이패, 해군 군악대와 통제사 기를 중심으로 여러 종류의 색깔 수조기, 각종 무기를 든 조선시대 수병 복장을 한 군졸들이 통제사 가마를 호위하며 뒤를 따랐다. 행진은 세병관에서 여객선터미널까지 했다. 요즘은 한산대첩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이순신 공원 앞바다에서의 한산해전 재현이지만 그 시절(1994년)엔 삼도수군통제사 행렬이 최고 볼거리였다. 그 당시 아무리 가을 날씨가 해도 두터운 조선 수병 복장을 한 가마 멘 수병들은 비지땀으로 진이 빠져 녹초가 되었다. 내 서재엔 그때의 33회 한산대첩 통제사 행렬 사진이 걸려 있다. 가끔씩 눈이 갈 때마다 그때 거리를 메운 시민들의 환호성이 들리는 듯하고 가마 멘 수병들의 노고가 문득문득 생각난다.

나는 이후부터 이순신 장군의 마니아가 되어 지금까지 이순신 관련 책 이를테면 『한산섬 달 밝은 밤에』, 『난중일기』, 『이순신평전』, 『임진왜란의 올바른 해석(원균 측에서 쓴 책)』, 『칼의 노래』, 『나에게 아직도 배가 12척 있습니다』, 『이순신 홀로 조선을 구하다』, 『난중일기 유적편』, 『통제영 사관』들을 구입해 독파했고 최근엔 김종대 헌법재판관을 위시한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명사 14명이 공동 집필한 『이순신 정신과 리더십』

을 밑줄 그어가며 읽었다.

나는 해마다 한산대첩축제가 열리면 꼭 이 통제사 행렬만은 옛날을 생각하면서 빠짐없이 관람하고 있다. 통제사 행렬에 대해 첨언을 한다면 통제사 역을 맡을 이순신 장군을 전국 공모하여 재단의 엄중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이순신 역을 한 인물에게 '통제사 이순신 장군 메달'을 제작하여 선물한다면 이 행사의 품격이 한결 격상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행렬 때 이충무공의 한산도 시절에 지은 시(詩)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진중음(陳中吟)', '한산도 야음(閑山島 夜吟)' 등의 시구(詩句)와 명조 팔사품을 깃발에 새겨 함께 행진하면 그 행렬이 한층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축제 후 행사에 쓰였던 망루를 비롯하여 각종 인상 깊었던 조형물, 수조기, 각종 무기, 깃발 명조 팔사품, 깃발에 새긴 장군의 시, 대첩기념 사진촬영대회 입선작 등을 해저터널 내 상설 전시하여 해마다 교체한다면, 해저터널은 새로운 볼거리로 탄생될 것이며 한산대첩을 되새기는 새로운 학습장이 될 것 같다.

이 기회에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에 제언(提言) 하나 하고자 한다. 지금 아산 현충사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칼이 있다. '三尺誓天 山河動色 一揮掃蕩 血染山河'(삼척서천, 산하동색, 일휘소탕, 혈염산하)란 검명(劒銘)과 甲午(갑오) 4월 太貴蓮(태귀련) 李戊生(이무생)이란 글이 새겨져 있다. 칼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고 '이순신 장군의 칼'이란 글만 땡그라니 붙어 있다. 갑오년 4월(1594년) 하면 이충무공의 한산도 시절이다. 태귀련 이무생은 임진왜란 왜구의 노략질에 잡혀가 일본 땅에서 풀무질과 메질을 하면서 도금제작 기술을 익힌 조선인 대장장이로 임란 때 조선 길잡이로 와서 다시 포로가 되어 참수 대신 이용하기로 하여 장군의 휘하에 들어와 한산도 용초에서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장군의 의장용 칼을 제작한 것이라 여겨진다. 실전에서 장군이 패용한 칼은 쌍용검으로 안타깝게도 분실되었다고 한다.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에서 이를 철저히 고증(考證), 그 칼의 내력을 밝혀 현충사에 전시된 장군의 칼 진열함에 '이 칼은 통영 땅 한산도에서 이순신 장군의 삼도수군통제사 시절에 제작된 것임'을 기록한다면 관람객들이 통영의 한산도가 구국의 현장임을 재인식하게 될 것이다.

하나 더 욕심을 부리면 재단에서 '장군의 칼 제작소'를 제승당에 설치하여 장군의 칼을 미니어처(miniature)하여 관광상품화한다면 장군의 칼은 불티나게 팔려 대박이 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 30여 년 전(1994년) 33회 한산대첩축제에 통제사 행렬 때 이순신 장군(최홍림)을 태운 가마꾼 수병들을 만나 생맥주 한잔 함께 나누고 싶다.

* 통영시 초대 시의회 의원, 현) 통영 동산약국 대표 약사

한산대첩축제 6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박 홍 식

통영 한산대첩문화재단으로부터 청사에 빛나는 통제영의 한산대첩축제 60년사 편찬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본인은 본적지인 항남동 249-3번지에서 살다 해군에 지원하여 훈련을 받고 통제작전관실에서 근무하다 훈련소 중대장님을 만났습니다. 통영사람이 의장대 대장을 하고 있어 1962년 한산대첩 행사가 있으니 행사 요원으로 가자고 하여, 행사에 참여도 하고 집으로도 갈 수 있었습니다. 1963년 행사에 참석하다 보니 본인도 한산대첩 행사에 보탬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생활 중 함대로 발령받아 근무 중 1965년 파월 백구부대로 해병대 수송 임무를 마치고 전역 후 통영으로 돌아와 해군전역자 모임을 만들어 지역사회와 모군에도 봉사하려 해군부인회도 조직하였습니다.

해군 모임의 명칭은 해향(海鄕)이라 하고 임시회장으로는 신재기 씨(작고)가 맡고 본인은 조직국장으로 활동하며 운영하던 중 서울에 서해구락부(誓海俱樂部)라는 모임이 생겨 통합하라는 지시가 있어 본인이 직접 서울로 가서 통영서해구락부(統營誓海俱樂部) 인준장을 받아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서해구락부 초대 회장으로 김일용 씨(해군신병 21기)를 추대하여 운영하던 중 국가로부터 육해공 예비역은 재향군인회로 합치라는 지시에 의해 해군예비역 각 지회는 사조직으로 남아 통영전우회라는 조직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해군과 해병이 같이 모여 있었는데 해병도 서해구락부 해산과 동시에 해병전우회로 별도로 분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군사병 전역자들만 단합하여 매년 한산대첩제 행사에 참가하고 회원들의 사비를 협조받아 전야제 행사 후 해군 행사 요원들의 피로연을 여러 기관장님을 모시고 시민체육관과 봉평동 유스호스텔 등에 침식 제공까지 하였으며, 4월 28일 탄신전야제와 시민위안의 밤 행사 등을 마쳤습니다. 이에 우리 전우회가 활동하는 모습을 본 총령사 이사장 김정숙 씨가 당시의 제전위원장과 의논하여 28회 한산대첩제 평가 및 29회 행사의 준비위원 모임에 참여시켜 한산대첩 행사 특수분과 위원으로 추대받아 행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수년 전 어느 날 아침 우리 집에 오시던 이정규 전 시장님께서 저에게 ‘한산대첩 행사에 해군들의 참석이 갖지 않으니 진해 해군작전사령부에 가서 한번 의논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시기에 해군작전사령부 행사 담당 소령을 만나 “저도 해군 전역자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며, 한산대첩 행사에 해군이 참석해야 할 이유와 상황을 설명드려 비상이 내려지지 않는 한 잘 협조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원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진행하던 한산대첩 행사에 참석해야 할 행사 요원들이 오지 않아 통영 소재의 초등학교 악대부나 심지어 삼천포의 학생 악대부를 행사에 참여시킨 적도 있던 터라 너무 열악한 한산대첩 행사의 현실이 답답하여 해군 담당자에게 알아본 결과 진주의 개천예술제나 마산의 어느 행사와 날짜와 기간이 겹쳐 참석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29회 행사 전 시청회의실에서 열린 분과별 애로사항 협의 시 한산대첩 행사 개최 기간을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날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변경하고 이순신 장군의 후예인 대한민국 해군을 참여시키도록 하여 제대로 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동안 통영의 해군예비역 행사에 참석하신 몇몇 장성분들과 해군 함대 작전사령부에 연락하여 날짜와 기간이 변경되어 타 지역 행사와 겹치지 않게 된다면 해군 군악대와 의장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29회 한산대첩 제전위원장께 알려드렸습니다. 이후부터는 한산대첩 행사를 해군의 지원 하에 성황리에 치르게 되었고, 이후 제전위원장인 박명용 님의 감사패를 받아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침 44회 한산대첩 행사 때 병이 생겨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활동하던 한산대첩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후로 이제는 통영을 떠나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씩 해군 군악대와 의장대 회원들을 만나 한산대첩 행사에 수고하였던 옛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옛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것이 전우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제영이 있는 곳 통영, 이순신 제독의 영혼이 살아 계시는 곳, 한산대첩제가 영원 무궁 발전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해군전우회 12대 회장 해군 노병 박홍식이 기원하면서 노병은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다! 통영 해군 전우와 한산대첩제가 영원하라! 왜놈들이 핵폐기물을 버리지 못하도록 쫓아내자. 바다가 죽으면 통제영이 죽는다.

* 용남 양조장 대표, 한산대첩기념제전 특수행사 부장 역임

나와 한산대첩축제

이 부 원

한산대첩기념제전이 1962년에 시작해 벌써 60주년이라니 감회가 새롭다.

그간 나는 한산대첩 행사의 제전위원, 기획위원, 참여 지도위원 등의 직위에 위촉된 일이 많았으나 대개 명예직이었다.

나는 통영 충렬사의 이사로서 연간 5회 향사 등 제례에 참여했는데 그중 한산대첩 고유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내가 맡은 건 집례였는데, 집례란 헌관을 모시고 제향을 진행하는 선임집사로서 주체인 한산대첩기념사업회에서 통영 충렬사에 위탁된 고유제를 내가 집사들을 교육하고 부서를 확인하여 차질없이 장중하게 진행하여 행사의 격을 높여야 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이것을 1991년 제30회 때부터 2011년 제50회까지 무려 21년간 맡아 진행했다. 그간 여러 가지 변한 것도 있었지만 기억나는 것은 초창기의 제례홀기는 순한문식이었다. 나는 통영 충렬사에 사원으로 입회 후 집사(집례)로 봉무하기 훨씬 이전에 도천동에서 백운서재, 효자 박지순공 석다례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종묘 제례와 큰사당 제례 등을 많이 견학하고 시대의 흐름인 한글병용 홀기를 작성해 사용한 경험이 있었으나, 통영 충렬사의 이사장님 등 어른들은 전통을 고수해야 한다고 이를 끝내 수용치 않는 때였다.

당시 김광현 제전위원장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사장께 특청을 넣어 이번 고유제 행사만 한글을 병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냈다. 이에 집례가 한문으로 된 홀기를 창하면 해설자가 이어 우리말로 풀어 지시하는 식의 진행을 하니 제례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 많은 이들이 이해하기 좋기 때문에 반응이 좋아 이때부터 충렬사의 제향홀기는 한글을 병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는데 20년 넘게 이 일을 했으니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되어 후배들에게 인계하고 말았다. 중차대한 일을 오래 했지만 지금 마음은 담담하다.

또 한산대첩 행사와 인연을 맺는 일이 생겼다. 시조창이라는 전통 장르가 통영문화원 문화학교를 통해 들어와 교습을 받다 조직화되어 (사)한국정가진흥회 통영시지부장직을 맡게 되었다. 명칭은 한산대첩기념제전인데 큰 연고인 한산도 제송당엔 행사가 별로 없음을 간파하여 제송당 수루에서 한산도가를 창하는 행사를 구상했다. 제전본부를 찾아가 취지를 설명하여 찬동을 받고 일부 지원금을 받기로 했다.

한산도 제송당에서 2015년 제54회 한산대첩축제 제1회 정가(가사, 가곡, 시조창) 발표 공연을 갖게 되었다. 병행해서 당일 저녁에는 세병관에서 2회 공연을 하게 되었다. 힘겹지만 많은 이들의 지원에 힘입어 두 곳의 행

사를 성공리에 마치게 되었다.

2회 때인 2016년 제55회 한산대첩 행사에는 한산도 제승당과 세병관 중영에서 각각 행사를 개최해 전년과 비견 더욱 발전된 행사를 치른 실적이 있다.

제3회 2017년 제56회 한산대첩 행사는 제승당에만 개최기로 하고 착착 준비를 한다. 제전본부와 협의해 행사를 규모나 질면에서 더욱 드높이라는 권유로 지원금을 좀 넉넉하게 받았고 이에 걸맞은 예능 실력자를 모시는 것과 제반 진행에는 상당한 경비가 더 소요되어 한산농협, 통영농협, 새통영농협을 위시해 새마을금고 2곳 등과 기관단체 등 15곳 정도에서 5,100,000원의 협찬이 들어왔다. 나도 500,000원을 포함 회원들도 모두 이름을 올렸다.

행사 당일인 2017년 8월 14일에 장마철로 비가 많이 와 통영시, 제전본부, 한산면 등 관계처에서 내게 전화가 불같이 온다. “비가 계속 오니 행사 진행이 가능하겠느냐?” 나는 “결연코 행사는 계획 변경 없습니다. 무조건 진행합니다” 하고 잘라 말했다.

당일 점심을 일찍 마치고 대절해 놓은 대형 유람선을 타고 한산도로 향한다. 한산도에 배가 닿으니 비는 더 세차게 내려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다. 제승당에 올라가니 야단이다. 비바람이 얼마나 심했던지 행사장인 수루엔 전부 물, 나뭇잎 투성이었다. 모두들 사당 참배 후 비를 피해 제승당 전시관 앞 등에 피신해 있고 도저히 답이 없다. 궁리 끝에 제승당 전시관에 전시물을 잠시 치우고 여기서 공연을 하면 안 될까 하고 관리사무소에 협의하니 한마디로 안 된단다. 전시 공간이지 공연 공간이 아니라고 자른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바람은 이제 잦아든다. 비는 와도 상관없다는데 의논이 되어 수루에 물을 닦아내고 행사장을 만들기로 한다. 이때쯤 우리의 뜻을 전해들은 면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면내 유력 인사들이 이제 제승당으로 달려온다는 전언에 이들에게 농사용 갑바(비옷)를 가져오게 부탁했다.

수루 마루를 마른걸레로 물을 닦아내야 하는데 이 판에 마른걸레가 어디 있나. 참석자 기념품으로 준비했던 타월을 아낌없이 꺼내 사용한다. 그래도 바닥이 축축하고 여건이 안 좋았지만 가져온 농사용 갑바를 깔고 안 되면 또 기념타월을 더 꺼내 깔고 공연을 시작한다.

나는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일기 안 좋은데 공연을 하게 되어 모두에게 감사 드림과 한산대첩일이 음력으로 7월 8일 만세력에 양력으로 8월 14일 즉 오늘이 그날인 것이다.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고 전쟁을 안 하며, 답다고 전쟁을 피할 것이냐 그날을 상기하면 무엇을 못할까 하고 힘주어 말하니 모두 큰 박수로 화답한다.

날씨 때문에 악기 줄이 늘어지고 바닥이 고르지 못해 무용하는 선생의 춤사위가 어려워도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열심히 공연해 끝까지 잘 마쳤다.

특이한 건 공연 중에는 비가 뚝 그쳤다는 것이다. 관광객 등 관람객은 관람에 문제가 없었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 시차를 두고 비가 또 쏟아진다. 모두 장군님 혼령이 감응하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내가 충무공 제향 집례를 오랜 기간 해온 중에도 제례 진행 시에는 오던 비도 그 시간만큼을 그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아 온 터라 더욱 자신을 갖고 큰소리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나는 한산대첩축제에 내 나름의 기여를 했음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

* 전) 통영 충렬사 이사, 전) (사)한국정가진흥회 통영시지부장

통영한산대첩축제 이야기

하영대

한산대첩축제가 처음으로 열렸던 1962년 4월 25일 그때에 나는 중학교 1학년이었다. 대부분의 가정이 어려운 보릿고개 시기였고 태풍 사라호, 4·19혁명, 5·16정변 등 굵직한 사건들로 연이어 시끌벅적했던 때였다. 축제 행사를 구경하기 위하여 도산면에서 버스를 타고 통영 시내로 들어왔다.

고성에서 출발한 버스는 비포장도로로 흔들리고 덜컹거렸지만 마을마다 축제에 참가할 많은 승객들로 인하여 만원을 이루고 있었다.

그 당시에 버스터미널은 지금의 성광호텔 그 부근이었는데 대로와 골목길이 구경나온 손님들로 꽉 차 있었다. 키가 작은 나는 어른들 틈새에 끼어 떠밀리다시피 하며 겨우겨우 시내로 돌아다닌 기억이 있다. 어린 나이에 뭐가 뭔지 모르고 이순신 장군이 일본 병사들과 우리 지역 앞바다에서 맞붙어 크게 이긴 전쟁을 기념하며 벌이는 행사라고 알고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한산대첩기념제전은 처음에 봄철에 하다가 통영이 탄생한 10월 1일로 옮기기도 하였으며 다시 무더위가 절정인 8월로 옮기게 되었다.

10월 1일은 1604년 삼도수군통제영 설치를 시작하던 그해 음력으로 9월 9일로서 중양절 길일(重陽節 吉日)이었다. 이날은 통영이라는 지명이 탄생한 날로서 통영시민의 날로 제정되었다. 봄철에도 그러했고 10월 1일이 끼어 있는 가을에도 한산대첩축제가 열리면 비가 오는 때가 많았다. 그러다가 행사 일정을 8월 14일 전후로 잡은 것은 1592년 임진년 음력 7월 8일이 한산대첩일(양력 8월 14일)이었기 때문이다.

축제도 좋지만 혹서기에 행사 준비와 참여하는 사람의 고충도 있고 시민과 관광객의 애로사항도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 420여 년 전에 바다 위 뜨거운 거북선 안에서 힘껏 노를 저었을 병사, 포를 쏘기 위하여 쉴 틈 없이 화약을 장전하였을 참전용사를 떠올리면 이까짓 고생쯤이야 감지덕지로 받아들이다. 해군에서는 이미 이날을 한산대첩일로 기념해서 행사를 해오고 있는 터였다. 국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한산대첩기념제전 행사가 더해지면 시너지효과가 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은 또 6·25전쟁 시 해병대가 통영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날이기도 하다.

한때는 10월 시민의 날 기념과 한산대첩 행사, 시민체육대회가 같은 기간에 열리게 되었는데 동별로 가장행렬을 꾸며서 시내 행진도 하고 공설운동장에서 경연도 펼쳤다. 여기저기에 행사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즐비함

은 물론이다. 가장행렬에는 소형트럭이 분위기에 맞게 치장되고 각종 변장에 얼굴 분장도 하고 재주꾼의 걸쭉한 입담, 연기자끼, 그 위에 구경군의 응대와 화답으로 온 시가지가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다. 연출 소재는 흥부 박타기, 대첩승리 축하, 경제 발전상, 미래 성장 설계 등등으로 유머와 재치 넘치는 볼거리였다. 시민의 참여도와 호응이 상당히 좋았다.

내가 그러보는 한산대첩축제는 그 좋은 소재에 구국의 열이 곳곳에 서려 있는 이곳 통영에서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2005년 여름에 통영의 문인 후배들이 원주에 사는 박경리 작가와 언론과의 인터뷰에 참여했을 때 “통영은 이순신 하나만 잘 가꾸고 다듬어도 먹고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산도 제승당과 충렬사 경충재에는 다음과 같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한시가 주련으로 걸려 있다.

수국추광모(水國秋光暮) 한산도 섬나라에 가을이 저문데
경한안진고(驚寒雁陣高) 찬바람에 놀란 기러기 진중에 높이 떴네
우심전전야(憂心輾轉夜) 걱정되는 마음에 이리저리 뒹구는 밤
잔월조궁도(殘月照弓刀) 새벽달이 활과 칼을 비추네

장군께서 얼마나 고심하고 나라 구하는 데 노심초사하였을까 근심하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 작품이다.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본 행사와 축제 준비를 위하여 이만한 성의와 땀방울을 기대해 본다.

2009년 통영 길라잡이를 하겠다고 모 민간단체에서 실시한 문화관광 길라잡이 교육에 참여한 바가 있다. 여기에 어느 강사 한 분이 황희 정승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느 날 황 정승 큰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시험 삼아 이런 얘기를 했죠. “아버님 엇그제께 중국 명나라에서 온 사신이 이르기를 중국 태산이 넘어졌다고 합니다.” 황 정승이 “오 그래 그 산이 생긴 지가 오래되어 그 말이 맞다고 할 수 있네.” 다음 차례는 작은 며느리다. “아버님 제가 듣기로는 그러한 얘기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안 넘어졌답니다.” 이번에도 황 정승 대답은 확실했다. “그렇지 그 산이 밑이 넓어서 안 넘어졌을 것이다.” 안방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마나님이 이르기를 “당신 그러면 어느 며느리 말이 옳다는 얘지요?” 황 정승이 이번에도 서슴없이 “당신 말씀도 옳소.” 조선 왕조 때 대표적인 청백리 황 정승의 겸손하고 훌륭한 소문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사전에 입을 맞춘 얘기지만 상대의 응대에 엇박자를 내지 않고 대화의 논리가 명쾌하고 또렷하다.

통영한산대첩축제에 참여한 시민과 관광객이 온 시내를 꼭 메우고 케이블카로 관광객이 만원을 이룬 미륵산은 견디다 못해 넘어졌다는 과장보도라도 되는 날이 왔으면 하고 바라본다.

공직으로 근무 중일 때는 직접 참여를 못했다가 퇴직 후에는 한산대첩축제 고유제 봉행을 위한 집사로 몇 차례 참여하게 된다.

제집사취배위개재배 (諸執事就拜位皆再拜)! '집사들은 모두 자리로 들어서 재배하시오!'로 시작되는 홀기에 따라 현관, 집사, 시민, 관광객이 엄숙하게 행사에 임하게 된다. 무더운 하절에 예복을 갖추어 격식에 따라 진행되는 고유제는 참례자와 시민, 관광객 모두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행사의 첫 시작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산대첩축제가 시작된 지 회갑을 맞으면서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 통영시청에서 35년간 근무

한산대첩축제 불꽃 이야기

류 태 수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인 1960년대의 천주교에서는 아침기도를 조과(早課), 저녁기도를 만과(晚課)라 했다. 요즈음 드리는 아침, 저녁기도는 천천히 드려도 2분 채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당시 60년대에 드렸던 조과, 만과는 족히 20여 분은 넘게 걸렸다.

우리 형제자매(나, 누나, 남동생 둘)는 어머니를 따라 만과를 드리고 있었다. 기도 드린 지 열추 10여 분이 지났을까, 바깥에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가 들려왔다. ‘퍼~잉, 퍼~잉, 타탕~타탕 퍼~잉.’ 이 소리는 1962년 4월 25일 제1회 한산대첩축제를 축하하는 불꽃 발사 폭음이었다. 기도를 드리던 우리는 일제히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기도를 계속하게 하였다. ‘퍼~잉, 퍼~잉, 타타타 펑~잉.’ 계속해서 들리는 불꽃 발사 소리에 어머니도 불꽃을 보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신 것 같았다. 우리를 바라보며 “불꽃 보고 나머지 만과 드리자.” 말씀이 떨어지자 모두 이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었다. 하늘을 통해 보는 거리로 향남동 집에서 남망산은 지척이다. 밤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불꽃은 나를 향해 덮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가까이에서 터지고 있었다. 처음 보는 불꽃은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의 눈에 놀랍고 또 놀라운 경이(驚異) 그 자체였다. 이후 사진 대학에 진학한 나에게 한산대첩축제 때의 불꽃은 즐겨 촬영한 피사체가 되었고 불꽃과 통영항 전경을 한 장에 넣어 촬영하기 위해 해마다 안티산을 오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1971년 12월 초순에 사진대학 졸업작품전이 개최되었다. 졸업작품전에 한산대첩축제 때 촬영한 불꽃 사진 2점을 출품하였다. 전시장을 지키는 당번 날이 되어 가니 나에게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내용은 불꽃 사진을 구매하고 싶다는 것과 의논을 해야 하니 반도호텔 3층 사무실로 방문해 주기를 바란다는 글이었다. 가서 보니 우리나라 「은행 연합회」 월간 화보를 제작하는 곳이었다. 1972년 1월에 발간하는 화보집 표지에 내 불꽃 사진을 싣고 싶다고 하였다. 사진 원고료는 일금 1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당시 서울에서 2인 1실 하숙비가 10,000원 할 때였으니 지금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꽤 났을 것이다.

방학이 되어 집으로 내려와 아버지께 불꽃 사진이 표지에 실린 화보집과 사진 원고료로 받은 10,000원 중, 5,000원을 드리면서 나머지 5,000원은 친구들과 회식비로 썼다는 것과 돈의 출처 등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다. 표지에 실린 불꽃 사진을 보시던 아버지께서 질문하셨다.

“야~야. 한산대첩축제가 시작된 초기에 불꽃을 누가 제공했는지 알고 있냐?”라고 물으셨다. 당연히 모르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반문하였다. “주최 측에서 준비한 것이 아닙니까?”라고 되물어보니 불꽃을 희사(喜捨)해

주신 분에 대해 알려 주셨다.

불꽃을 희사해주신 분의 함자(銜字)는 ‘이금옥(李金玉)’. 통영 출신으로 소년 때 일본 도쿄로 건너가 자수성가하신 분이라 하셨다. 형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넉넉지 못한 살림살이를 하는 형수와 조카들을 위해 항남동 소방서 건너편에 금옥여관을 만들어 준 일 등을 말씀해 주셨다.

2021년 5월 하순, 『통영한산대첩축제 60년사』에 수록할 원고 청탁서를 받았다. 청탁 내용은 나와 함께했던, 또는 내가 알고 있는 통영한산대첩축제 이야기에 관한 것이었다. 어떤 것을 쓸까 생각하던 중, 축제 초기 불꽃을 희사해주신 이금옥 님의 고마움에 대한 글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는 너무 단편적이라 글쓰기 자료로는 부족하였다. 혹시라도 이금옥 님이 제공해주신 불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고마움이 실린 글귀라도 있을까 하여 몇 가지 자료를 찾아보았다. 1987년에 발간한 『충무시지』 1006쪽, 1999년 2월에 발간한 『통영시지』 상권 1401쪽, 2018년에 발간한 『통영시지』 제2권 659쪽 한산대첩기념제전 편에 불꽃을 희사한 이금옥 님에 대한 글은 하나도 없었다. 축제에 도움을 주신 분을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되는지 내 자신이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 아울러 이금옥 님은 어떤 연유로, 축제 몇 회까지 불꽃을 제공하셨는지 궁금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 숙부의 도움으로 금옥여관에서 성장한 조카 분들을 수소문하였다. 다행히 어렵지 않게 고성읍에 거주하고 있는 장조카(77세)를 만나 숙부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다. 더하여 비록 전화로였지만 경기도에 거주하는 조카딸(73세), 서울에 거주하는 막내 조카(68세)를 통해 숙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세 분 중, 막내 조카분이 상세히 알고 있었는데 숙부께서 한국에 오면 서울에 있는 막내 조카 집에 계셨기 때문이라 했다.

이금옥 님은 1914년생이며 13세 어린 나이에 혈혈단신 일본 도쿄에 건너가 유리공업회사인 「일진초자」, 「대산초자」를 설립하여 재벌의 반열에 올랐다고 했다. 이렇게 번 돈을 고향 통영에 아낌없이 희사했는데 교육사업, 장학사업에 큰 금액을 희사하셨다. 한산대첩축제에 불꽃 제공은 제1회부터 6회까지 했다. 계속해서 불꽃을 제공하고 싶었지만 민원이 발생하여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민원의 내용을 들으니 어이가 없었다. 불꽃 폭음에 닭이 알을 낳지 않고, 개, 돼지, 소가 놀라 날뛰는 통에 피해가 막심하니 손해배상을 해 달라는 민원 때문이라 했다. 교육, 장학사업은 관계부서에서 기록을 남기면 될 것이다. 하지만 한산대첩축제 제1회부터 제6회까지 당시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불꽃과 점화발사기를 일본에서 가져와 축제를 더욱 빛나게 해주신 고마운 뜻을 『한산대첩축제 60년사』를 발간할 때 어느 곳이든 기록으로 남겨 고마움을 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금옥 님은 1980년 66세로 영면하셨다. 축제의 밤을 화려하게 장식해 준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전해 올리고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글을 맺는다.

* 한국사진작가협회 통영지부 고문

나와 함께했던 한산대첩축제

한수연

1. 교가 속의 두 위인을 만나다

통영에서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서 전승한 것을 기려 해마다 ‘한산대첩제’가 열린다. 문화 행사 중에 전국 학생 백일장도 들어 있었다. 남망산공원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백일장에 참가한 한 무리의 학생들이 오종종 모여 있었다. 그때 베레모에 바바리코트를 입고 파이프까지 문, 이런 시골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한 신사가 우리들 곁으로 다가왔다.

“충렬학교 맞제? 너거 학교 교가 누가 지었는지 아냐?”

그 당시 우리 학교는 통영에서 유일하게 교복을 입고 있는 초등학교라서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신사가 그의 모습과는 다르게 통영사투리를 쓰고 있는 점이였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답한 아이는 나 혼자였다. 나는 학교 현관 앞을 지날 때마다 액자 속의 교가를 꼭 한 번씩 읽고 가는 버릇이 있었다.

“반만 년에 오롯한 해와 달이고

금수강산 애뜻한 비와 바람에

애오라지 자라는 겨레 어린이...”

초등학생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교가의 뜻을 혼자 헤아려 보느라 한참씩 서 있곤 했다.

“유치환 작사, 윤이상 작곡입니다.”

아이들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신사도 파이프를 입에 문 채 빙긋이 웃을 뿐이어서 얼굴만 빨갛게 달아올랐다.

심사위원을 소개하는 순서에서 그 멧쟁이 신사가 바로 시인 ‘청마 유치환’ 선생이라는 것을 알았다. 중·고등 학생들이 청마의 이름이 발표되자 한꺼번에 함성을 질렀다. 내 속에서도 함성이 터져 나왔다. 우리 학교 교가를 지은 인물을 실제로 만난 충격적인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 충격이 얼마나 벅찼던지 그날 백일장에서 한 줄의 글도 쓰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또 하나 희망이 생겼다. ‘유치환을 만났으니 이제는 윤이상도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였다.

그 희망이 50여 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다. 2017년 3월, 윤이상 탄생 100주년에 맞춰 내가 쓴 『소리의 집을 지은 윤이상』이 발간되었다. 세계현대음악의 거장인 선생은 독일 베를린에서 타계한 지 23년 만인 2018년

3월, 고향으로 돌아와 '통영국제음악당' 안에 마련된 묘역에 안장되었다. 통영바다가 밤낮으로 귀밑에서 찰싹 거리는 곳, 그곳이야말로 선생이 그토록 그리워하며 영원히 잠들고 싶었던 곳이 아니었을까? 추모객들의 헌화 순서에서 「소리의 집을 지은 윤이상」을 바치며 나는 온몸으로 말했다.

‘이제 글을 쓰지 않아도 편하겠다. 왜? 윤이상을 썼으니까!’

2. 우리 동네 팔선녀 났네

달리 구경거리가 없었던 그 시절, 한산대첩은 온 시민의 축제였다. 그중 팔선녀는 군점 행사의 꽃이었다. 푸른 쾌자를 입고 머리에는 방울 달린 전립을 쓴 꽃처럼 어여쁜 팔선녀들이 이순신 장군 행차를 따라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는 모습은 화제의 중심이었다. 뉘집 딸이 그 속에 있음은 가문의 영광이었다. 그런데 그 속에 우리 언니가 있었다. 언니는 한산대첩 1,2,3회에 걸쳐 팔선녀로 참가했기 때문에 그 팔선녀로 인하여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리 동네 팔선녀 났네’가 우리 동네 뉴스였고, 팔선녀를 구경하려고 온 시꺼먼 남학생들로 골목이 터졌다. 그뿐이라! 내 딸이 팔선녀가 되었다고 어머니의 기별을 받은 시골 일가친척들은 며칠씩 묵어가는 동안의 양식으로 쌀을 한 뿔박씩 보자기에 싸들고 왔다. 한산대첩축제 기간은 우리들이 베개를 들고 이웃집으로 자러 가곤 했지만 집안에 가득한 웃음소리며, 친척들의 이야기, 고소한 음식 냄새로 행복했다. 마치 우리 동네를 대표하여 우리 집이 한산대첩축제를 하는 것 같았다.

하루 종일 구경거리를 찾아다니느라 손님들이 신고 온 하얀 고무신은 밟히고 벗겨지며 흙먼지 투성이가 되어 돌아왔다. 어머니는 저녁이면 우리에게 그 고무신을 깨끗하게 닦아 놓으라고 했는데 얼마나 박박 문질렀는지 자기 신발을 표시해 온 자국까지 지워버리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이면 표시가 사라진 신발 때문에 한바탕 소요가 일어나곤 했던, 팔선녀가 된 언니로 하여 더욱 풍성한 우리 집의 한산대첩축제였다.

* 동화작가, 76년 한국일보 신춘문에 동화 당선, 89년 경남신문 신춘문에 수필 당선

한산대첩을 기리며

양 미 경

세상에 모르는 이 있을까.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왜란 때 풍전등화와도 같던 나라를 구해낸 전쟁이 바로 한산대첩이라는 것을. 그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통영에서는 해마다 8월 14일을 전후해 ‘한산대첩축제’가 성대하게 개최된다.

나는 몇 해 전 시간을 내어 한산대첩축제의 바다에 온전히 빠져들었다. ‘삼도수군통제영 군점’과 ‘통제사 행렬’에 승전무와 오광대 공연도 함께했다. 축제 중에서 단연 하이라이트는 ‘한산대첩 출정식’과 ‘한산해전 재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축제 나흘째, 산양읍 당포항으로 향했다. 행사장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거북선 3척과 판옥선으로 분장한 어선 수십 척이 깃발을 휘날리는 가운데 출정식이 거행되었다. ‘한산대첩 출정식’은 웅장하였고, 영화 ‘명량’의 장면과 겹치면서 진한 감동이 파도 되어 밀려왔다.

오전에 출정식을 보고 문화마당에서 해병대 의장대 시범을 보았다. 오후에 ‘한산해전’ 재현을 보기 위해 망일봉 기슭 바닷가에 자리하고 있는 이순신공원으로 이동했다. 정상에 올라 이순신 동상 앞에 섰다. 동상 아래엔 장군의 유명한 어록이 새겨져 있다. 통제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귓전에 들려오는 듯했다.

‘필사즉생(必死即生) 필생즉사(必生即死)’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수많은 인파가 산을 단풍처럼 물들이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장관이었다. 하늘에는 ‘블랙이글 에어쇼’, 땅에 서는 ‘조선 수군 격군 훈련’과 ‘통제영 24만 전통무예’가 펼쳐졌다.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명량 김한민 감독의 사인과 함께 시작된 한산대첩 해전은 단위별 축제 프로그램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라 했다. 거북선과 판옥선이 돌격하고 뒤를 이어 선박 80여 척이 숨 가쁘게 움직였다. 420여 년 전 조선 바다의 제해권(制海權) 확보와 서해 진출을 위해 견내량에 집결한 일본 수군을,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해 학익진(鶴翼陣)을 펼쳐 섬멸하는 그 역사적인 전투를 본 것이다.

이어서 승전을 기념하는 수많은 횃불이 공원을 물들이고, 축하 공연이 성대하게 펼쳐졌다. 그날의 감동은 아직도 뇌리에 남아 있다.

다음 날 한산도 제승당으로 갔다. 한산대첩 기념행사의 일원인 시조창 공연 관람객으로 참석한 것이다. 광주와 대구 등지에서 시조창 공연에 참여하기 위해 많이들 오셨다. 대금·장고·피리·해금 연주자들과 통영 정가 회원 수십 명이 수루에 올랐다. 이순신 장군의 그 유명한 ‘한산섬 달 밝은 밤에’ 평시조가 시작을 알렸다. ‘나 비야’와 ‘한산도 야음’이 울려 퍼졌다.

그중에서도 조선 후기 대사헌과 이조판서를 지낸, 건옹(建翁) 김양순(金陽淳)이 한산도 제승당에 들러 공의 충의를 흠모하면서 지었다는 칠언율시(七言律詩) ‘제승당(制勝堂)’에 호기심이 갔다. 지도교수인 향산(香山) 선생이 곡조(曲調)를 붙여 시창(詩唱)으로 불렀다. 참으로 신선했다. 대사헌까지 지내신 어른께서 그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오셔서 통제영의 진영을 보고 200년 전 한산해전의 승리를 떠올리면서 충무공의 충성심을 회고 하셨다니. 쉬이 접하기 어려운 자료라 여기에 옮겨 본다.

제승당(制勝堂)

김양순(金陽淳, 1776~1840)

樓船十尺坐來高(누선십척좌래고) : 열자 누선에 높이 앉으니

太乙句陳勢更豪(태을구진세경호) : 그 형세가 태을성처럼 호기롭구나.

忠義至今存社稷(충의지금존사직) : 충의는 아직 나라에 남았고

規模從古壯城壕(규모종고장성호) : 진영의 규모는 옛부터 컸도다.

三更鼓角風威盪(삼경고각풍위탕) : 깊은 밤 북소리에 위풍을 떨치던

百戰山河水影搖(백전산하수영요) : 싸움터 산하가 물속에 일렁거리니

白壽餘生多慷慨(백수여생다강개) : 늙은 몸 의기가 북받쳐

虛堂不寢撫長刀(허당불침무장도) : 빈 방에 잠 못 들어 긴 칼만 어루만진다.

가락에 몸을 맡기니 해풍보다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후볐다. 한 줄기 산들바람이 흘러내리는 땀과 열기를 식혀 주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마다 한산대첩축제에 참여하리라 다짐하며 한산도의 잔잔한 물결에 몸을 실었다.

* 수필가, 통영문인협회회장 역임

1971년 제10회 한산대첩기념제전 기록사진 촬영대회 입선

공 청 식

한산대첩 행사는 1962년부터 시작되면서 군점은 제1회부터~5회까지 통영수산고등학교 김우성 선생님께서 총감독 및 연출을 맡았다. 한산대첩축제를 처음 개최하는 충무시는 긴장감과 의욕이 넘쳤고, 시민들도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1967년 제6회 한산대첩 행사의 군점은 국립 통영수산고등전문학교 5년제 학제 개편으로 고등전문 1학년생이 참여하며 애항심과 애국심을 키웠다.

그때 이순신 장군 역할은 4학년 총학생회장이 하였는데, 행렬 시에는 시민들과 학생들은 이순신 장군을 보려고 시내 간선도로변을 꼭 채웠다.

시골에서는 농번기를 마치고 시내에 굶보러 온다고 용남면, 도산면, 산양면, 옥지도, 사랑도, 한산도에서 모두 올라오니 시내가 시끌벅적 정말 축제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행렬 시에는 군졸들과 통영수산고등전문학교 악대부와, 초등학교 악대부들이 참가하여 축제를 더욱 빛냈다.

악장들의 복장과 악대부들의 음악소리는 정말 멋진 광경이었다.

통영수산고등전문학교에서는 13회까지 군점 행사를 하였고, 1974년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거 통영수산전문학교 2년제가 되면서 14회부터 통영고등학교에서 군점 행사를 맡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1977년 발간한 통수 60년사)

본인은 1969년 통영수산고등전문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서 제8회 한산대첩 군점 행사에 군졸로 참가하여 군점 연습을 며칠간 하였으나 특별한 기억들은 없었다.

그리고 1970년 1971년 2년간 통영수산고등전문학교의 학보사 기자로 활동하면서 군점 행사에 참여하는 학교의 행사로 취재를 하게 되었다.

당시만 하여도 요즈음처럼 카메라를 누구나 쉽게 취급할 수 없었다.

동기생 중에 카메라를 소유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기억되며, 나는 학보사 기자로서 카메라를 취급하였으며, 흑백 필름과 컬러 필름에 필름 규격 종류가 다소 있었다. 필름의 관수가 24판, 36판의 필름을 취재 중에 필름을 몇 통씩 가지고 다니면서 교체하며 취재를 하였는데, 필름이 빨리 소진되어서 정말 아껴서 촬영을 한 기억이 난다.

1971년 고등전문학교 3학년 학보사 기자로 학교 행사 사진을 대부분 촬영하였으며, 한산대첩 행사 군점 취재는 2년째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익숙하였다.

카메라에 대해 익숙해지고 행사의 분위기도 익혀지니 마음의 여유가 생겨, 한산대첩제전 행사 사진 촬영 공모전을 한다고 하여 사진 공모전에 나도 한번 도전하고 싶은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행사의 여러 장면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학교 행사 취재 사진을 인화할 당시 항남동 오거리 부근 부산사진관에서 하는데, 사장께서 한산대첩제전 행사 촬영한 사진 중에 작품성이 있는 사진을 선별하여 출판하라고 조언과 함께 사진을 인화하여 주셨다.

학생부가 별도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부에 3학년 학생 신분으로 한산대첩기념제전 사진 촬영대회에 응모하였다.

1점은 남방산공원에서 한산대첩 기념행사를 마치고 내려오는 공원 입구의 아치(축하 및 환영의 뜻으로 호형으로 만든 광고물) 설치 지점에서 이순신 장군의 군점 행렬 장면을 카메라에 담은 것을 ‘勝戰의 行進’이란 제목으로 표현하였고, 또 1점은 세병관에서 군점 행사 장면이 해군 군악대 악기에 군점이 축소되어 반영된 부분을 촬영한 것을 선별하여 ‘반영’이란 제목을 달아서 응모하였다. (당시의 촬영 필름과 사진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

1971년 한산대첩 379주년 제10회 한산대첩기념제전 사진 촬영대회에 처음 접수한 2점 모두 운 좋게 입선이 되어 한산대첩기념제전 김기석 위원장 명의로 상장과 부상을 받았으며, 열심히 군점 취재에 뛰어다닌 보람이라고 생각하였다.

촬영대회 입선 이상 수상 작품 사진들을 항남동 지금의 김안과 부근의 2층 다방에서 1971년 11월에 한산대첩기념제전 사진 전시회를 하였다.

1971년 제10회 한산대첩제전 행사 취재한 보도기사를 찾아보려고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도서관에 통영수전 학보를 찾았으나 창간호와 1970~1971년경 신문들은 소실되어 없었고, 1973년 제12회 한산대첩 행사에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에 참여 및 수상 보도기사를 볼 수 있었다.

* 대한민국 어업부문 신지식인 선정(행정자치부장관), 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수산가공학)

우리의 큰 잔치, 한산대첩축제

유영희

우리가 학교 다니던 때, 가을이 시작될 무렵이면 온 시가지에 수련수련 설렘이 넘쳐났다. 간선도로변으로 청사초롱이 걸리고, 학교에서는 한산대첩 거리행렬 준비가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으레 참여하는 것으로 알았고, 당연히 행해야 하는 행사였다.

걸스카우트 대원인 친구 몇몇은 태극기를 들고 행진 대열의 선두에 서고, 팔선녀를 분장한 학생들이 고개를 다소곳이 대열의 첫 부분에 서기도 했는데, 후에 선녀들은 승전무를 전수하는 학생들이 주로 맡았다. 남학교에서는 덩치 좋은 학생들이 이순신 장군이나 휘하의 장수로 분장해, 말을 타는 호사를 누렸다. 개구진 학생 중에는 망나니 역을 맡아, 길가에 늘어선 관중으로부터 시선을 한 몸에 받으려는 듯, 가다가 중간 중간에 긴 칼을 휘두르는 퍼포먼스를 한바탕 연출하기도 하였다.

여고 2학년 때인가, 우리 학교에서는 강강술래로 참여를 했다.

학교 운동장에서, 손에 손을 잡고 ‘강 가양 수, 울, 래’ 하며 돌다가 템포를 빠르게 하여 ‘강, 강, 술, 래’ 하며, S자로 행렬이 꼬이다 다시 풀리는 대형을 무지 연습하였다. 따가운 햇살 아래 무용선생님의 호루라기 소리가 도릿골 골짜기에 메아리치고, 2층 교실에서 내려다보면 아름다운 물결이 일렁이는 것 같았다.

행사 당일, 학교 교칙에 따른 갈래머리에 검은 실타래를 연결하여 땅고, 흰 치마저고리를 입었다. 대개 어른들에게 빌린 옷이라 잘 맞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듯했다. 행렬을 지어 행진을 하다가, 지금 우리는 행인, 한일은행 앞에서 한 바퀴 강강술래 춤을 연출하였다. 눈썹도 좀 그리고, 참하게 땅아 내린 긴 머리를 팔랑거리며 한복치마를 두둥실 구름처럼 펼치는 친구들의 춤을 보면서, 백일장 참여한다고 그 행사에서 제외된 나는 웬지 울컥하고 가슴이 뜨거워졌던 기억이 난다. 그날 친구들은 선녀 같았다.

가까운 친구 영선이는 한복 차림으로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어, 해외 펜팔친구인 미국소녀에게 보냈다. 얼마 후 온 답장을,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사진을 뒤적여가며 해석한 즉, 한쪽 어깨에 늘어뜨린 긴 머리하며 새초롬한 표정의, 원래 예쁜 친구의 모습이 그 소녀에게 무척 인상적이었는지 감탄사로 가득한 내용이었다.

학교에서만 한산대첩축제가 준비되는 것이 아니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가장행렬이었고, 동별로 순위가 매겨지는 중요한 행사였다. 우리 동의 행사 주역인 거북선은 주로 우리 목공소에서 제작되었다. 한산대첩이 다가오면 그해의 테마가 거론되고, 어떤 아이디어가 좋을까 하고 동사무소 직원과 아버지의 진지한 대화가 오갔다. 거북선은 반드시 입으로 붉은 연기를 내뿜어야 그야말로 품이 났으므로 어떻게 연기를 내뿜게 할 것인가

가 연구 대상이고, 무거운 거북선의 이동수단도 고민의 중심이었다. 각 동에서 만든 거북선도 각양각색으로 어떤 것은 거북선으로 봐주기도 좀 민망하게 어설픈 모양도 있었다. 등 부분에 쇠막대나 침을 꽂고, 노 젓는 부분에는 실제로 안에서 노를 젓는 모양새를 내보기도 하는 등, 여러 아이디어가 동원되었다. 한번은 선체를 리어카에 얹어 안에서 사람이 끌고, 연기를 피워 올렸는데, 어느 동에선가 트럭에 얹어 움직이는 바람에 기동성에서 한 수 접혔다고 아쉬워하시던 아버지의 모습도 기억에 남아 있다.

통영시민 대운동회와 더불어 행해진 행사는, 결혼 후에는 한 덩치 하는 남편이 동대표로 씨름대회에 나가기도 했다.

세월이 흐르고, 행사 시기와 양식도 많이 변하였다. 한산대첩 승전일을 기려 한여름에 행해지는 축제인 만큼, 옛날의 행사와 요새의 행사는 많이 다르다. 또 전국적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참여 신청을 받아 관광객이 참여하는 등 참여 인원도 다양해졌다. 세련되고 멋진 장비로 시행되는 작금의 축제를 보면서, 온 시가지가 흥에 넘치던 가장행렬이 그리운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 시인·수필가, 통영문인협회회장

한려수도를 건너며

- 통영한산대첩축제 60주년에 부쳐 -

공 옥 식

‘나와 함께했던 통영한산대첩축제’ 하면 지금도 아득하게 떠오르는 추억이 하나 있다. 바로 한산대첩기념 전국웅변대회이다. 통영중학교 재학 시절, 학교 대표로 선발되어 참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남망산공원 소나무 숲에서 날달걀을 먹어가며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였다. 대회 당일, ‘세병관(洗兵館)’ 커다란 글자 편액 바로 아래 마련된 연단에서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구국정신을 이어받자는 사자후를 토했다. 그러나 중학부 1등상은 여학생에게 돌아가고 말았다. 그때 어린 마음에 내가 분루를 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학생의 단발머리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까까머리 남학생으로서는 단발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하는 여학생의 제스처를 능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내게 한산대첩은 웅변 원고 속의 아련한 추억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한산대첩축제는 참가자에서 관찰자 입장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럼에도 간접적으로나마 통영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통영물푸레문학동인회’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최정규 시인의 주도하에 물푸레는 향토문학의 텃밭을 일구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문학 활동 뿐만 아니라 ‘유양팔선시집(柳洋八仙詩集)’ 발굴과 ‘남해안(통영) 별신굿’ 사실 발굴, 통영에서 발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시조 동인지 ‘참새’지 연구 논문 게재 등 통영 문화의 뿌리를 찾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는 단편소설 ‘통영기행’을 통해 한산대첩에 참전했던 통영사람들의 기질과 정신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를 재조명해 보려고 했다.

통영한산대첩축제 60년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수많은 자료 발굴과 새로운 행사 시도로 이제는 그야말로 지역문화의 특색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처럼 그동안 쌓은 경험과 이론 성과로 세워진 오늘의 이정표는 앞으로 100주년을 향하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축제의 본질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모름지기 축제는 고대부터 제천 의식을 시작으로 춤과 노래로 마무리하는, 이른바 일과 놀이의 경계가 없어지는 일종의 원시종합예술의 형태를 보였다. 오늘날 축제 또한 다르지 않다. 한산대첩기념제전에서 한산대첩축제로 명칭이 바뀐 것 역시 행사의 무게추가 어디에 방점을 찍는가를 잘 보여준다. 먼저 엄숙한 제전 행사를 마치고 난 뒤 뒤풀이 마당처럼 지역의 모든 문화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난장이 마련되고, 여기에 덧붙여 지역 특산물 먹거리장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공동체의 단합이 절실한 오늘의 시대상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한데 어우러지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참가의 폭을 넓혀야 하는가이다. 물론 지금까지 통영한산대첩축제는 지역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중심추 역할을 해왔다. 그것은 관(官)이 주도하는 수직적 직선의 계층적인 피라미드 형태가 아니라, 민(民)이 주도하는 수평적 곡선의 동심원 파동 형태의 연대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욱 그 역할을 증대시켜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인들까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지역과 교류 및 연대를 하는 것이야말로 지역 축제에 머무르는 한계 또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갈수록 공간과 시간이 분화되고, 파편화되어 가는 디지털 시대에 지역공동체의 단합을 어렵게 하는 개인주의적인 목소리들이 더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포용적 지혜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김구 선생의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산에는 한 가지 나무만 자라지 않고, 들판에는 한 가지 꽃만 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나무가 어울려서 위대한 삼림을 이루고 백 가지 꽃이 섞여 피어서 봄 들판의 풍성한 경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아카시아 향기 품은 5월의 훈풍이 한려수도를 건너고 있다. 김춘수 시인이 전혁림 화백에게 써 준 시 속의 ‘코발트 블루’, 그래서 시인은 그리스에게해보다 통영 바다가 더 푸르다고 했던가. 나 또한 그 바다에 쪽빛 그리움을 담아 본다.

* 부산대 국문학과 졸업, 부산MBC 신인문예상 소설 당선, 부산덕문여고 교장 역임

금(線) 밖에 있는 사람들

박순생

가끔 금(線)을 그어놓고 세상을 바라본다. 언제부터 생긴 버릇인지 모르겠다. 어찌다가 내가 그어 놓은 금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거의 금 밖에서 그 안을 들여다보는 쪽에 속한다. 가끔은 금 안으로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아예 등을 돌리고 먼 산을 바라보기도 한다.

여러 해 전, 통영한산대첩축제 집행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적이 있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제안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철저히 금 밖에 있었으며 흔한 관심조차 없었다. 하지만 조금 생소한 일을 하게 된 그 순간부터 매년 열리는 축제에 대해 떠올려도 보고, 행사 기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을지 찾아보기 시작했다. 금 안으로 들어온 이상 이름값은 해야 할 것 같았다.

재단에서는 ‘황금 거북선을 찾아라’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했다. 순금 20돈짜리 황금 거북선을 1등 경품으로 내걸었다. 축제 기간 내에 일정 금액 이상 통영 시내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경품권으로 교환해 주고, 그 경품권들을 대상으로 축제 마지막 날 추첨하는 방식이었다.

축제 기간 중에 경제도 살리고 시민들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그 뜻이 있음을 알기에 기쁜 마음으로 일을 도왔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품 추첨을 할 때 현장에서 경품권에 쓰여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당첨자를 확인하고 경품을 지급하자는 의견이었다.

시민들이 가지고 온 영수증을 경품권으로 교환해 주는 일에도 자원했다. 그러다 염불보다 잣밥에 관심이 더 많은 몇몇 경우들도 보게 되었다. 액수가 큰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경품권을 여러 장 달라고 막무가내로 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저기서 영수증을 주워 모아 와서 경품권으로 교환해 가는 이도 있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씁쓸한 기분도 들었지만, 그보다 축제라는 금 안으로 시민들을 한발 들여놓게 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었다.

축제 마지막 날, 황금 거북선이 경품함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을 모여든 시민들과 지켜보며 내가 금 안에서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 후에 재단으로부터 공로패도 받았다. 아마도 이벤트 효과를 톡톡히 본 게 아닌가 싶다.

그해 축제에 참여하며 아쉬웠던 점은 정해진 자리에서 일을 하다 보니 멀리 있는 행사장을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한자리에 앉아 지나다니는 행인들을 지켜보곤 했었는데, 그들은 저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행사 일정표를 들고 여러 부스를 찾아다니며 축제를 골고루 즐기는 사람들이 있

는가 하면, 먹거리를 위주로 공략하는 이들도 있었다. 또 축제 기간 내내 쓰레기를 주우면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일을 하고 있는 부스 바로 옆에서 왜군 복장을 한 자원봉사자들과 조선 수군 역할을 맡은 어린이들이 편을 나뉘 물총 싸움을 하는 모습을 재미있게 보았다. 그때 그 어린이들은 한산해전의 의미를 알거나 했을까. 훗날 그날을 기억하고 행사에 참여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한다.

이제는 해마다 축제가 열리는 기간이 되면 관심이 간다. 그냥 무심히 보내 버리기에는 신경이 쓰인다. 아마도 금 안으로 들어섰던 기억이 꿈틀거리나 보다. 여러 정보를 검색해 보기도 하고 시간을 내어 가까이 다가가 보려고 같이 갈 친구도 찾아본다.

그해 축제가 이루어지던 어느 날, 폭우가 쏟아져 행사장이 물바다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시청에서 지원 나온 공무원은 젖어버린 구두 대신에 슬리퍼를 사서 신고도 짜증 한번 내지 않고 물을 퍼냈다. 의연하게 현장을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집이 고성이라던 그분은 어디쯤에 있을지 궁금하다.

금(線) 밖에서 그 안에 있는 세상을 궁금해 하면서 살아가다가도 가끔은 금(線) 안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해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 수필가, 통영쪽빛감성학교협동조합 대표 역임

환갑을 맞이하는 통영한산대첩축제를 축하하며

김 미 옥

통영한산대첩축제 60주년을 맞아 통영시의회 의원으로서 소회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웃으며 행복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며, 우리 지역의 대표 축제가 환갑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위대한 성웅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께서 한산도 앞바다에서 학익진으로 한산대첩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다음 해인 1593년 한산도에 초대 삼도수군통제영을 설치하여 통제영, 즉 통영의 역사도 시작되었으며 전란이 끝난 후 이곳 두룡포에 이설되며 본격적인 군영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세계 4대 해전에 속하는 역사적 의미를 두더라도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우리 지역도 충무시로 불렸던 적이 있었으니 성역화에 대해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1962년 전국적으로 지역축제가 태동하기 전에 우리 고장의 선배님들께서는 충무공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주민들과 어울려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 축제를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이순신 장군 행렬은 때로는 왜놈을 참수하는 퍼포먼스부터 읍면동에서 거대한 소품으로 가장행렬까지, 학생들 또한 청사초롱을 들고 함께 퍼레이드를 따라 거닐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 그 퍼레이드가 어찌나 장관이었는지 함께 따라가며 친구들과 웃었던 생각이 납니다.

교복을 입고 축제장을 친구들과 정겹게 다니던 소녀는 어느덧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되고, 장년을 지나 중년이 되어 지역의 소임을 맡아 시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축제 속으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봄에서부터 가을로 그리고, 지금의 한산대첩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8월에 개최되는 기간 동안 늘 함께했습니다.

많은 일화가 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한산대첩 재현과 승전축하 주막입니다. 젓가락 하나만 들고 읍면동 ‘음복주점’에 들러 각 읍면동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의 맛깔나는 음식들을 맛보다 보면 어느덧 배도 부르고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10여 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이순신공원에서 펼쳐진 한산대첩 재현의 장대한 장면을 바라보면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한산해역은 이순신의 바다이며 역사의 바다이고 수많은 조선 수군의 바다입니다.

430여 년 전 이 바다에서 왜적을 쳐부수고 바람 앞의 등불 같던 조선을 구한 승전이 바로 한산대첩입니다. 실제 전장이 일어났던 바다에서 한산대첩 재현 행사를 거행하는 것 또한 의미가 각별하다 하겠습니다. 실제 거북선 3척까지 동원하여 우리 지역의 어선 100여 척이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으로 학익진을 연출하는 장면 이야말로 역대 한산대첩 축제의 백미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동과 함께 모두가 어우러져 축하하는 읍면동별 주막 형태의 음복을 통해 축제기간 고생한 노고와 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리며 신명나게 어깨춤을 추며 서로 격려하는 시민 대동제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요, 통영의 정신이며 우리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을 하며 무엇보다 자랑스럽고 뜻깊었던 활동이라면 단연 '통영시 한산대첩 기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하며 "1592년 임진왜란 발발시 한산도 앞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끈 조선 수군이 대승을 거둔 한산대첩을 기념, 호국정신과 국난극복의 역사적인 의미 재조명을 위해 한산대첩 기념일을 지정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충무공의 정신으로 이순신공원의 이순신 장군 동상 아래 '32전 32승 승전도와 해전도'를 새겼으며 아마도 우리 지역의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과 근대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노력 역시 이러한 맥락의 역사 의식이 바탕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통영한산대첩축제에 대한 지난 추억을 떠올리며 글을 쓰니 지난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해마다 저와 함께 성장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후배님들께서 선배님들의 진정성 있는 축제의 정신을 반영하여 통영의 문화유산으로 전승하며 발전시켜 나가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무엇보다 60년 동안 한산대첩 축제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부족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5, 7, 8대 통영시의회 의원, 제8대 통영시의회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역임

나와 함께했던 한산대첩축제 행사

서 상 록

내가 한산대첩축제 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것은 1998년 통영해양경찰서 교통계장으로 재직할 때이다. 해마다 한산대첩 행사가 준비될 때면 주관부서인 통영시와 주최인 한산대첩재단에서 행사 협조 요청이 온다.

당시 본인은 평소 이 행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행사장의 해상 교통 확보, 안전, 행사장 외곽 경비를 위한 순찰 함정 파견 등 지원 가능한 모든 분야를 꼼꼼히 챙기며 본 행사가 어느 때보다도 잘 되기를 바랐다.

1998년 9월 통영시장(고동주)이 행사에 협조한 유관단체 담당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감사와 격려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초청을 받고 갔다. 식사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본인은 통영시장께 행사에 대한 미흡한 점을 건의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산대첩은 우리나라의 3대 대첩 중 하나로 세계 4대 해전에 속한다고 한다.

세계 해전사에 유례없는 학익진 전법을 펼쳐 적선 73척 중 59척을 침몰시키고 약 5~6천 여 명의 왜군을 수장시킨 반면, 조선 수군의 피해는 전사 19명에 불과한 대승을 거둬으로써 임진왜란의 많은 해전 중 으뜸이다.

그래서 통영시는 해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산대첩축제에서 가장 핵심은 한산해전일 텐데 행사 기간 동안 약 40여 개가 넘는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한산해전을 재현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다.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전국 어느 축제 행사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중복된 프로그램이고 한산대첩 축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한산해전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한산대첩의 전투 장면을 재현하기를 건의하고 싶다. 해전이 일어났던 장소도 통영시 내와 많이 떨어진 먼바다가 아니고 충무관광호텔 앞바다여서 한산해전의 전투 장면을 재현한다면 망일봉과 관광호텔 언덕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관람하기에도 최적의 장소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것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을 한다면 앞으로는 이 행사를 한산대첩축제 기간에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봄, 가을로 나누어 한산해전을 재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관광객들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본 행사를 치르고 있지만 축제에서 꽃 중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한산해전과 학

익진 전투가 빠져서야 되겠는가?

이러한 건의를 드린 후 본인은 해외로 떠났다. 그 후 약 10여 년이 흐른 뒤 한산대첩 행사를 볼 수 있었는데 행사 마지막 날 한산해전을 재현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대와 흥분된 마음으로 관람하였다. 한산해전이 재현된다는 것에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허술한 면이 상당히 많았다. 물론 해상에서 전투 장면을 연출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기는 하지만 이것을 시민들에게 해마다 보여 준다는 것은 문제가 많음을 느꼈다.

2014년 안식년으로 통영에서 휴식의 시간을 가질 때 한산대첩재단에서 행사를 위해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나는 한산해전 분과위원으로 봉사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해 오던 한산해전의 시나리오를 모두 바꾸었다. 우선 서울에서 연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한산해전 분과 위원들과 함께 망일봉 행사장에 가서 현지 지형 답사를 시작했다.

답사 결과 본인은 망일봉 앞 바다를 가로 1km, 세로 500m의 대형 스크린이라 생각하고 이 대형 해상 스크린 안에서 좌측엔 일본 수군을 두고 우측에는 조선 수군을 배치하며 학익진을 시작으로 전투를 재현해 나가자고 했고, 이 답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또한 재현 행사의 시간을 앞당겨 해가지기 전에 시민들이 재현 장면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종전의 재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기대하는 만큼의 수준에 오르지 못하는 못하여 이 부분을 연출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보다 박진감 넘치는 해전의 모습을 보여 주고자 했으나 이 경우 소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이루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 사단법인 통영호주선교사기념사업회 회장

나와 함께했던 통영한산대첩축제 이야기

하영진

1. 국민학생 축등을 들다.

1962년 제1회 한산대첩기념제전이 시작된 후 내가 한산대첩축제에 참여하게 된 것은 당시 진남국민학교 4학년이었던 1996년 제5회 행사 때인 것으로 기억한다. 참여했던 행사는 축등 행렬이었는데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고학년 학생들이 참여를 하였다. 축등 행렬인 만큼 저녁에 시작이 되는데 봉숫골의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고 동네 친구들과 걸어서 해저터널을 통과하여 두룡국민학교에 집결을 하였다.

축등 행렬에 들고 나갈 등과 양초는 각자 준비를 해야 했는데, 이 등은 하루 이틀 전에 시내에 있는 문구점(만복상회, 성광문구, 중앙당 등)에 가서 구입을 해 두어야 했다. 당시 시내버스는 다니지 않았고, 학용품이나 참고서 등을 사려면 왕복 8km 정도의 거리를 걸어야만 했다. 제등 행렬 참가자는 모두 가면을 만들어 와서 쓰도록 하였다. 나는 가면의 코를 피노키오처럼 길게 만들어 붙였는데 행진 도중 도로변의 관중들 중 누군가가 “저 애는 코를 길게 만들었네!”라고 말한 것도 아련히 기억이 난다. 어린 나이였지만 자연스럽게 한산대첩축제 행사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2. 동 서기(洞書記) ‘각설이’가 되다.

한산대첩축제에 다시 참여를 하게 된 것은 30대 초반인 1985년경이다. 공무원이 되어 향남동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매년 한산대첩축제에 각 동에서 출연하는 가장행렬 행사가 있었다.

사실 해마다 가장행렬의 주제를 정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었다. 가장행렬 준비를 앞둔 어느 날 같이 근무하던 L 선배께서 ‘문정’이란 분을 한 번 만나보자고 하였다. L 선배와 함께 ‘문정’ 형님을 만나 가장행렬 준비에 도움을 주시라 했는데 기분 좋게 수락을 해주셨다. 이 후 세 사람이 매일같이 만나 주제를 정하고 세부내용을 정해 나갔다. 먼저 주제는 ‘통영장날’로 정해졌는데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시대는 1960년대 초반으로 볼 수 있겠다.

콧수염을 붙이고 복을 둘러맨 동동구리무장수, 엿장수, 떡장수, 각설이 등을 등장시켜 보는 이로 하여금 옛 향수와 웃음을 자아내게 하였다. 나는 직접 ‘각설이’ 역으로 출연을 하였는데 요즘 행사장에서 볼 수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닌 진짜 거지 모습의 의상과 분장으로 눈길을 끌었다. ‘각설이’는 축제 기록사진전에 출품 전시되기도 하였다. ‘통영장날’을 준비하면서 나와 문정이 형님, 그리고 L 선배님 세 사람은 정말 신나게, 즐

겹게 작업에 임하였다. 문정이 형님의 상상력과 소품 제작 솜씨는 정말 대단하였다.

우리 세 사람뿐 아니라 동료 직원, 그리고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등 동 단위의 여러 조직 구성원들께서도 각종 소품 준비 및 여러 배역을 맡아 함께하여 주셨다. 읍·면·동 근무는 행정업에 협조하고 봉사하는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좋고, 또 이분들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활기차고 아름다운 읍·면·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 된 노력으로 '통영장날'은 가장행렬 평가에서 2등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행사라는 것이 다 그렇겠지만 가장행렬의 경우 시가지 행진을 하여 축제 행사 서막식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차량 장식물을 해체하고 소품 등도 버리게 되는데 허전하고 아쉬운 마음이 남게 된다. 가장행렬 준비를 하는 동안 많은 웃음과 재미를 주셨던 문정이 형님은 통영을 떠나 30여 년 동안 소식을 모르는 중이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고 우선 건강하시길 바란다.

여하튼 축제의 의의는 지역민의 의지로 만들어지고 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다고 본다. TV 등에서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토마토 축제, 맥주 축제 등 소박한 주제의 행사도 지역 주민의 열띤 참여로 이루어지고 전 세계에 소개됨과 아울러 세계 사람이 몰려드는 경우를 보았다. 브라질의 리우카니발이 대표적인 것이다. 우리 통영의 한산대첩축제도 일부 사람들만의 행사가 아닌 온 시민이 관심을 갖고, 즐겁게 참여하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즉 남녀노소 전 시민의 잔치가 되는 것이다.

축제 기간 중 하루 이틀 정도는 학교와 직장을 쉴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학생과 시민이 축제를 관람하거나 체험을 하여 추억을 쌓으면 좋겠다. 이렇게 체험과 추억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면 후일에 한산대첩축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한산대첩축제가 더욱더 특색 있고 알찬 행사가 되어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축제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 국가무형문화재 통영오광대 전승교육자, 전) 충무시 공무원

통영한산대첩이여 영원하라

김 순 철

내 나이 세 살 때 한산대첩제전이 처음 열렸으니 한산대첩축제와 나는 두 살 차이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을 이고 말 못하는 허수아비가 가을 들판의 누런 나락을 지키느라 분주해지고 이웃집 울 너머로 동이만 한 감이 붉어지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오는 것이다.

학교에는 제법 정보가 빠른 몇몇 녀석들이 어디에서 주워들었는지 충무시내(지금의 통영시)에서 곧 한산대첩이 열린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 이때부터 우리의 마음도 바빠진다. 어떤 방법으로 용돈을 모아 한산대첩을 구경하러 충무시내로 갈 것인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전과나 수련장을 사야 한다면 대충 둘러대고 어머니에게 겨우 한 50원을 얻으면 될 듯이 기뻐다. 토요일 오후 일찍 수업을 파하고 우리는 한산대첩을 구경하기 위해 충무 시내로 간다. 비포장도로에 몇 시간 만에 한 대씩 오가는 마이크로버스를 기다릴 여유도 없었지만 우리는 얼마의 차비라도 아껴야 하기에 10리 길을 걸었다.

화려한 의상을 한 군졸들의 호위를 받으며 행렬 맨 앞줄에 선 삼도수군통제사 충무공 이순신이 탄 가마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했다. 통제사 다음으로 줄줄이 이어지는 가장(假裝)행렬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제전이 벌어지는 세병관, 충렬사, 해방다리, 오거리 등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 보면 해는 지고 배가 고파 온다. 붕어빵 한두 개로 끼나를 때우고도 한산대첩제전을 구경했다는 자긍심 하나로 우리는 어둠을 뚫고 피곤한 줄도 모른 채 10리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 일 년에 한 번 가을에 열리는 한산대첩을 구경하는 것이 시골에 사는 우리에게서 큰 희망이었다. 추석보다 더 기다려지는 것이 한산대첩이었다.

나는 어른이 된 이후에도 한산대첩의 마니아이긴 했지만 늘 외곽에서 한산대첩을 구경만 하는 이방인이었다. 한산대첩이 어떤 것이며 왜 하는지도 모른 채 늘 한산대첩을 기다렸다. 공무원이 된 이후 단 한 번도 이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에 근무해 보지 못했다. 그런데 2007년 초 행정조직 개편을 하면서 한산대첩축제 지원팀(문화산업팀)장을 직위 공모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다. 나는 그 공모에 응했고 2007년 4월 16일 계(팀)장이 되었다. 제46회 통영한산대첩축제의 총괄지원팀장을 맡은 것이다. 감개무량했다. 그 기쁨도 잠깐, 엄청난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행사는 4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앞이 막막했다. 더더욱 한산대첩축제는 몇 년째 가장 하부 단계인 예비축제에 머물러 있었다.

축제 준비는 물론 평가도 신경 써 축제를 유망축제로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우선 한산대첩의 프로그램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았다. 지금까지는 축제 첫날 오후 충렬사에서 고유제를 봉행한 이후 오후 8시 문

화마당에서 개막식을 개최함으로써 도입부가 밋밋할 뿐만 아니라 색다른 스토리가 없었다.

1592년 6월 2일 한산해전이 있기 약 한 달 전 이순신 함대는 당포해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사기가 충천해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다시 동풍을 피해 당포항에 정박 중인 이순신 함대에 고급 정보 하나가 날아든다. 7월 7일 미륵도의 목장에서 말먹이꾼으로 일하던 목동 김천손이 미륵산에 올랐다가 견내량 근처에 정박해 있는 왜선을 목격하고 단숨에 당포항으로 달려 내려가 이순신 함대에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한다. 그야말로 고급 정보였다. 그렇지 않아도 한산도 앞바다를 손바닥처럼 알고 있던 이충무공은 밤샘 작전 회의를 한 이후 다음 날(7월 8일) 당포항을 발진하여 견내량에 정박해 있던 왜선 70여 척을 넓은 바다로 유인하여 학익진으로 일망타진하니 이 해전이 바로 청사에 빛나는 한산대첩이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제46회 한산대첩축제(2007. 8. 9.~8. 12.)는 당포항에서 한산대첩을 알리는 고유제를 지내고 이를 이충무공에게 알리는 의식으로 '김천손 구국의 봉홧불 이어달리기'를 기획하였다. 한편, 축제 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되는 축제와 관계없는 야시장을 철폐하는 것이었다. 이 일은 통영해병전우회에 전적으로 맡겼다. 전국에서 몰려드는 그야말로 전문꾼들을 상대해서 야시장을 없애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축제 시작 첫날 아침부터 축제장을 점령한 이들을 쫓아내기 위해 경찰까지 동원하였으나 식칼까지 들고 나와 버티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오싹해진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을 완수해 준 통영해병전우회에 깊이 감사드린다.

축제 마지막 날 거행하는 한산대첩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한산해전 재현 장소도 강구안에서 이순신공원 앞 실제 해전이 벌어졌던 한산도~견내량 앞 바다로 옮겼다. 한산해전 재현 참가 요원들도 대부분 한산도 어민들이 참여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뒤에 김천손 구국의 봉홧불 이어달리기는 현 당포항에서 거행하는 한산대첩 출정식으로 발전하였고 야시장은 그때부터 없어졌다.

이때까지는 행사에만 급급했지 평가대비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음으로써 축제는 늘 예비축제에 머물러 있었다. 우리는 축제 준비에 전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한산대첩 축제를 국가가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송만호 사무관을 찾아가 입이 마르도록 설명했다. “자라나는 후손들이 이 거룩한 이충무공 정신을 이어받고 드높은 공훈을 되새겨 민족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며 열변을 토했다. “한산대첩이 없었다면 당신도 우리도 이 자리에 없을 것이다”라며 담당 사무관을 설득했다. 우리의 끈질긴 설득에 그 사무관은 이런 지방공무원을 처음 본다며 결국 우리의 의견에 동의했고 축제 평가위원 명단도 알려주었다.

일보다 평가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는 없지만 힘들여 한 일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축제 팸플릿을 비롯하여 작년과 달라진 점, 축제의 하이라이트 등을 꼼꼼히 챙겨 일목요연하게 바인더로 만들어 심사위원 개개인에게 택배로 보냈다. 현장에 오시면 안내하겠다는 제의에 따라 대부분의 심사위원이 현장에 왔고 우리는 그들을 성의 있게 안내하고 접대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특히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현장으로 달려온 문화체육관광부 송만호 실무 사무관은 한산대첩축제에 대해 대단히 만족해 했다. 축제와 평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해 말 통영한산대첩축제는 유망축제로 승격되었다. 물론 그때 나는 임무를 다하고 10월 22일부로 다른 부서로 옮겨 감으로

써 공은 후임자에게 돌아갔다. 그 공이야 누가 가져가든 국가가 인정하고 국비를 지원해 주는 축제로 승격되었다는 데 뿌듯한 긍지를 느낀다. 그로부터 6년 만인 2013년 우수축제로 또 한 단계 승격되었다.

한산대첩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조국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을 때 거북선을 선봉장으로 학익진을 펼쳐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성전이 한산대첩이다. 그날의 그 감격을 되새기고 공의 위훈을 기리는 제전으로 출발하여 통영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일부 시민들 중 한산대첩축제 기간이 너무 더워 힘들다며 축제 시기를 가을로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아직 신에게는 열두 척의 전선이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यो,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라며 희망을 잃지 않은 이충무공을 생각한다면 조금 덥더라도 해전이 있었던 그 시기에 얼마든지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

이충무공은 안으로는 자신과 밖으로는 무능한 조정과 대외적으로는 일본과 싸웠다.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밝은 미래를 본 분이 바로 충무공 이순신이다. 영웅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충무공은 한 줄기 희망이다.

세계 4대 해전 중 으뜸이요, 이순신의 23전 23승 중 가장 빛나는 이 한산대첩축제가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가 되지 못할 까닭이 없다. 지역 축제라고 해서 우리끼리 모여 동네 축제로 치를 것이 아니라 가장 통영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슬로건 아래 알을 깨는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야 마땅하다. 한산대첩 429주년, 통영한산대첩축제 60주년 그 승리의 영광이며, 영원하고 또 영원하라.

* 한국문인협회 회원, 통영시지 집필위원, 전) 통영시 관광과장, 통영쪽빛감성학교협동조합 대표

나의 한산대첩 추억

유문두

색바람에도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이 오자 충무 시내는 한산대첩기념제전으로 만국기가 도로마다 내걸렸고, 어둠이 오면 일정한 간격으로 전깃줄에 매달린 청사초롱에 불이 들어와 거리를 비췄다. 일요일을 맞아 나는 바로 위 누나와 함께 제전을 구경하러 엄마를 졸라 시내로 가, 중앙시장에서 장사하는 큰누나한테 들렀다. 노상에서 좌판을 벌여놓고 삶은 고구마를 사라고 외치던 큰누나는 우리를 반가이 맞았다.

“너거들 오랜만에 왔는데 뭐어 사~주깁?”

나는 ‘삼춘, 삼춘’ 하며 매달리는 외조카의 손을 잡아주며 고민하다 “아이스케키!”라 하였고, 둘째 누나는 라면을 사 달라 했다. 큰누나가 사준 라면 양은냄비를 들어 국물까지 마신 우리는 물배를 출렁이며 한길로 뛰어갔다. 엄마가 주의를 줬다.

“엄편(영똥한) 데로 새지 말고 난중에 객선 시간 맞차서 찐판에 오이라.”

“오~마, 나~도.”

라면을 먹다 말고 울며 우리를 쫓아오는 외조카를 큰누나가 얼른 붙잡았다. 우리는 우는 조카를 힐끔힐끔 돌아보며 ‘명제의원’ 앞에 섰다. 왕복 1차선이라 도로는 시민들과 외지에서 구경 온 사람들 그리고 행사 요원들로 북적거렸다. 경찰관들이 질서를 잡느라 호루라기를 길게 불며 손짓했고.

토성고갯길을 눈이 빠져라 보던 나는 둘째 누나의 옆구리를 툭 쳤다.

“이야! 저어게 봐라!”

“와아~! 멋지다!”

통제사의 긴 행렬이 우리 앞을 지나 오거리 쪽으로 갔다. 우리는 통영오광대 놀이가 열리고 있는 남망산으로 부리나케 뛰어갔다. 제1과장이 막 시작된 참이었다. 어른들이 빼곡히 놀이마당을 싸고 구경해 우리는 겨우 비집고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법고와 소고 채를 든 문둥이가 문둥탈을 쓰고 법고춤을 추고 있었다. 선대의 죄로 문둥이가 되는 양반을 풍자하는 제1과장에 이어 제2과장 제3과장이 끝나고 제4과장 농창탈이 시작되자 자진뎃배기가 흘러나왔다.

사랑 사랑 내 사랑/ 어허둥둥 내 사랑/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어허둥둥 내 사랑이지야.

처첩 간의 가정 비극을 표현한 과장을 보던 중에 들려온 뱃고동 소리에 우리는 깜짝 놀랐다.

“객선 시간 다 돼 간다. 빨랑 가자!”

가로선 우리는 가풀막을 달려 부둣가 쪽으로 갔다. 통제사의 행렬이 병선마당에 진을 치고 있었다. 길이 딱 막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여객선이 하루에 한 번뿐이라 올상인 우리는 구경꾼들을 헤집고 겨우 매표소에 갔으나 문이 닫혀 있었다. 대합실은 썰렁했고 객선은 벌써 떠나버려 가뭇없었다. 싹판으로 나가는 육중한 목문도 굳게 닫혔고, 가게내기를 파는 간이 상점들도 거의 폐점한 상태여서 가슴놀이가 진동하는 게 느껴졌다.

“우짜노?”

“우짜기는? 큰이야 집에서 자고 가몬 되제.”

그렇게 말하며 나는 대합실을 조금 벗어나 구경했다.

산성중군에서 온 군졸이 군중을 비집고 병선마당으로 와, (가장한) 왜병들이 기습했다고 통제사에게 아뢰었다. 대장은 즉시 황신기와 흑신기를 흔들게 하여 기세를 올렸다. 봉화대에 있던 승병들도 달려와 왜병들을 포위했다.

“얼~래! 잘됐다!” 뒤축을 들고 구경하던 내 말에, 둘째 누나가 맞장구쳤다. “저어 팔괴이들이 설마더라 우리를 이기짱?”

“임진왜란 때도 이순신 장군이 왜놈들로 죽사발 났는데, 그장? 이야.”

“허어.”

징과 바라가 울리자 병사들이 한꺼번에 함성을 질렀다. 곧 ‘띠~띠~’ 하는 천아성(天鵝聲)과 득승고(得勝鼓) 소리가 연이어 들렸다.

“이야~, 대장이 배로 간다!”

누나는, 어데? 어데? 하며 남의 가게 계단을 밟고 서서 보았다.

붉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통제사가 좌선에 오르자 문책놀(나팔의 일종)이 울렸다. 청도기가 좌우에 세워지고 회고관(回告官)에서 성진(成陣)을 고했다. 이어 각종 기(旗)를 세우고 부하들이 도열했다. 통제사가 자리를 잡자 돛을 단 전선(戰船)이 한산도(閑山島)로 출발했다.

구경하던 시민들이 흩어졌다. 우리는 대합실 입구에서 엄마를 기다렸다. 나무사각 통 옆에 구두통을 놓고, 구두 닦아~! 외치다 까만 손으로 콧구멍을 후비는 구두닦이 소년과, 그 옆에 지계를 받쳐 놓고 꾸벅꾸벅 조는 지계꾼을 보고 있을 때 엄마가 헐레벌떡 뛰어와 출입문 밖에서 손짓했다.

“야~들아~! 싸구 오이라.”

우리는 엄마를 쫓아갔다. 마음이 급한 엄마는 양팔을 앞뒤로 세계 흔들며 계속 재촉했다.

“얼른 얼른 가자. 그으 사선 떨까몬(놓치면) 죽도 밥도 아이다.”

부산행 여객선이 닿는 부두를 지나 남망산을 마주 보는 동충쫂م 가자 남쪽으로 데메와 한산도가 보였다. 사선을 타고 데메 앞바다에 갔다. 고동산쫂메 통제사와 수병을 태운 전선이 가고 있었다.

“옴마, 대장이 탄 배가 제승당에 닿으몬 큰 잔치로 열 까다, 그장?”

“해년 해마다 그리 했는데 올해도 그리 안 하건나?”

통영한산대첩축제 이야기

원 필 속

1975년 통영여자고등학교 합창단원으로 한산대첩기념제전에 처음 참석했다.

지금은 통영시민문화회관이지만 그 당시 3·1운동 기념탑이 있던 남망산공원에서 초록빛 나무 잎새 사이로 비치는 태양 빛을 바라보며 하얀 제복을 입은 해군 군악대의 반주에 맞추어 의식가를 부를 때 그 감동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음악을 가르치셨던 정관호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단조의 비장한 곡은 아직도 귓전에 맴돌건만 어디에도 악보를 찾을 수 없어 안타깝다.

통영고등학교 학생들이 수군 옷을 입고 행진할 때 이순신 장군으로 선발된 학생은 자부심이 대단했고 인기남이었다. 친구 남편도 충무공 역할을 맡았던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한다.

1981년 첫 발령을 충무초등학교로 받고 맡은 업무가 음악교육이어서 의식가를 찾아 복사해서 파일로 만들고 절기마다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통영예술제가 1981년 시작될 때도 시민의 날, 한산대첩제와 같은 시기에 전시회와 공연 그리고 학생경연대회도 병행한 것으로 기억된다. 전시관이 없어서 한일은행 2층에서 나전칠기와 공예품 그리고 국화 전시회도 같이 했다.

통영연극협회의 공연도 행복예식장에서 처음 보았고 음악협회의 클래식 음악감상도 결혼회관에서 처음 접했다.

학생음악경연대회도 당시에는 통영시민문화회관도 없어 명정동 천리교 강당에서 독창, 합창, 피아노대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큰 불만이 없었던 것 같다. 1990년대까지 한산대첩 축하 가장행렬을 동별로 아주 거창하게 하는 것을 학생들과 함께 보며 모두 즐거워했다.

그 시절 큰딸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이순신 책'을 읽고 대회에 나가 상을 받고 와서 과거시험 친 것 같다고 했다. 대회는 차츰 발전하여 '승전고를 울려라'로 바뀌어 문제를 듣고 손 칠판에 보드마카로 답을 적어 치켜들고 맞으면 칠판을 흔들고 틀리면 바깥으로 나가고 패자 부활전까지 마친 후 마지막 승자가 북을 치는 대회로 바뀌었다.

2000년대부터는 한산대첩축제를 10월 1일에서 음력 7월 8일을 환산한 8월 14일 실제 한산대첩을 이룬 날짜로 행사 기간을 옮겼고, 2003년 통영음악협회지부장이 된 후 한산대첩을 이루었던 한산도 앞바다까지 해군 함정을 타고 나가 호국 영령들을 기리며 선상에서 위로 행사를 한 후 국화꽃 링을 바다에 던졌던 기억

은 새삼스럽다.

2015년부터 한산대첩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며 어떻게 하면 가장 한산대첩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를 할 것인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감하고 소통하며 토론하였다.

1990년대까지는 가장행렬이 시민이 함께한 행사라면 2000년대는 문화마당에서 한산대첩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대동제로 함께 어울렸고 이순신공원에서 보이는 한산도 앞바다의 학익진 전법 재현 행사로 빛을 발하였다. 다만 행사 때 내빈소개는 전광판에 이름을 모두 올려놓고 함께 일어나 인사를 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2017년 충렬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해서 ‘꿈틀꿈틀통영청소년뮤지컬단 단장’을 겸임하며 제7회 창작뮤지컬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학익진 전법으로 한산대첩이라는 쾌거를 이루는 이야기 ‘학의 날개’를 통영지역 초·중·고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펼칠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의 눈짓, 몸짓, 노래로 역사를 상기하며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모두를 위하여 힘찬 격려의 박수가 쏟아졌다.

지금은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위원으로 활동하며 한산대첩축제가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고 있다.

외국의 대규모 축제를 처음 접한 것은 2003년 통영음악협회 회원들이 통영국제음악제 프린지 행사를 잘 운영하기 위해 영국 에딘버러 축제를 참관하러 간 것이다.

공연을 물론이거니와 나비축제(butterfly festival), 책축제(book festival) 등 온 시민과 세계 시민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통영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 음악이 에딘버러 성 안에 있는 본 무대에 올라간 것은 안숙선 선생님의 ‘심청가’여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아했지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마음이 다시 들었다.

축제의 성공 여부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과 남녀노소, 모든 지역주민의 참여이며 본질은 벗어나지 않고 방법을 계속 바꾸어 나가는 것이라고 본다.

한산대첩제전위원회가 2018년부터 준비하여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2020년에는 세계적인 감염병 코로나19로 인하여 축제를 실시하지 못하였지만 올해는 대면/비대면으로 통영야행(夜行)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가장 통영적인 것이 가장 전국적이고 가장 세계적인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산대첩축제 100년사를 우리의 후손들이 쓸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고 축제를 계승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글을 맺는다.

* 전) 통영초등학교 교장, 통영예총 수석부회장

나와 한산대첩

허도명

나는 지금까지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항남동 전등사 앞을 지나가던 흥겨운 축제의 가장행렬 속에서 마음껏 즐겁게 춤추고 노래를 부르던 형, 누나들의 모습을. 한산대첩축제의 밤이 올 때면 어김없이 이어지던 가장행렬의 광경은 순수한 유치원생인 어린아이의 눈에 그저 흥겨운 놀이처럼 보였다.

초등학교 5~6학년 즈음 불어오는 선선한 가을바람에 덩달아 기분까지 좋아지는 10월 한산대첩이 열리던 날, 가게 2층 벽장 안에 놓여있던 종이 박스를 여니 만국기가 차곡차곡 개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가가 호호 상점 앞에 달린 만국기는 축제의 느낌을 물씬 풍기는 장식품으로 분위기를 한층 더 띄우는 데 제 역할을 다했다. 한산대첩이 열리는 날 전등사를 운영하는 우리 가게 문 앞에는 초롱이 항상 달려 있었다. 만국기와 함께 걸려 있는 환한 초롱 불빛에 괜스레 마음이 더 설렜던 것 같다.

당시의 나이로는 한산대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아이는 행사가 열리는 날이면 그저 설레는 마음 뿐이었다. 남방산 공원에는 공연을 할 수 있는 커다란 건물이 위치하고 있었다. 운동장처럼 넓고 평평한 공간이 있는 그곳에서 한산대첩을 맞이한 도서 지역민이나 당시 충무시 통영 군민들이 출전해 가요를 부르는 전국 노래자랑이 펼쳐졌다. 신나는 축제의 분위기와 겹쳐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이의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 중학교 시절에는 한산대첩 축제가 가까워지면 가장행렬에 참여하기 위해 저녁에 초롱을 들고 삼삼오오 두릉초등학교에 모여 밤늦게 한산대첩 가장행렬 속에서 친구들과 사람들과 어울려 축제를 즐기기도 했다.

유년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까지 한산대첩축제 가까이에서 지낸 나는 1986년 군대 제대 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김문용 사무국장과 사업적 인연을 맺고 사업을 공유했다. 당시에 박명용 제전위원장과 통영시의회의장인 김광현 한산대첩기념제전위원장님 때 한산대첩축제와 관련한 일들에 참여했다. 각 동에서 준비한 가장행렬단을 이끌고 공설운동장을 시작으로 시내 곳곳을 누비며 어린 내게 강한 인상을 심어줬던 가장행렬을 떠올리기도 했다. 당시 벅수골 연극 단장인 장창석 씨가 이끄는 통영시 새마을지도자들로 구성된 군점 연출 팀을 도와 군점 요원들이 연습에 매진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고, 김문용 사무국장이 재직하는 8년 동안 뒤에서 묵묵히 눈에 보이지 않는 잡무들을 처리하며 나름대로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공식적인 직함은 없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참여한 마음이 전해진 걸까? 감사와 수고의 의미가 담긴 한산대첩 감사패는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을 거쳐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산대첩축제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다.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그 당시는 한산대첩기념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1592년 임진왜란을 알고 있다면 한산대첩이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학익진 전법을 펼쳐 일본 수군을 크게 무찌른 전투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산대첩은 진주대첩, 행주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불리며 임진왜란 중에서도 대승을 거둔 전투라는 점에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한 한산대첩축제 준비와 관련된 일은 구국의 일념을 가지고 계신 이순신 장군의 뜻을 스스로 느끼고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해 준 경험이었다.

우리 지역 통영의 한산도 앞바다에서 펼쳐진 한산대첩은 세계 4대 해전에도 이름을 올린 승전이다. 한산대첩 60주년, 승전을 기쁨을 다 같이 나누고 축하할 수 있는 한산대첩에 담긴 의미를 충분히 되새길 수 있도록 자녀, 후손들에게 행사의 가치를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뜻을 기리는 것이 더욱 절실하고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통영고등학교를 비롯한 지역의 학생들도 군졸이나 수병의 역할을 맡아 군점에 참여했으나 요즘 학업에 시간을 쏟아붓는 탓에 학생들은 그마저도 힘든 분위기다. 한산대첩축제가 열리는 날 밤이면 초롱을 들고 가장행렬에 합류하는 최소한의 참여를 통해 한산대첩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나 현재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후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최○○ 사무국장이 한산대첩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기에 이후에도 미력하게나마 한산대첩축제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행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다. 일간지 기사를 거쳐 개인적으로 하던 사업을 접고 한산신문을 인수하면서 대표 자리에 오르니 더욱 한산대첩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산신문 창간일은 4월 28일. 공교롭게도 이순신 장군 탄신일과 같은 날이다. 삼도수군 통제영의 본거지가 한산도인 만큼 한산신문이 가지는 의미는 뜻깊다.

재단법인 한산대첩기념사업회는 2020년 7월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한산대첩기념제 전위원회 마지막 이사회 때 이사 자격으로 “통영시 전체 문화와 예술을 체계적으로 아우르는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이 새롭게 탄생한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 축하할 일이다. 역사를 간직한 한산대첩기념사업회가 해산 되는 것이 아쉽지만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60년史가 담긴 의미 있는 책을 만들어 남길 수 있다면 뜻이 깊을 것”이라고 제안을 했다.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한산대첩 60년史 책 편찬이 진행에 들어갔다.

한산대첩 축제와 함께 나 또한 나이 들어 간다. 통영이 이순신 장군의 삼도수군 통제영 설치를 시작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통제영 없이 통영도 없었을 것이므로 지역명 통영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특별하게 여겨질 것이다. 내 나이와 같은 한산대첩 축제가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면서 후손들에게 널리 알려 우리 고장 통영이 이순신 장군의 정기를 받아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 (주)한산신문 발행·편집인 및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이사

뜨겁게 작열하는 태양 별 아래

조 경 용

70년대 초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시절 아버지 무등을 타고 오거리 시계탑 앞 발 디딜 틈도 없는 인파 속에서 한산대첩축제 군점을 구경했던 기억이 지금도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초·중학교 때에는 읍면동마다 거북선을 앞세우고 통영시내 중앙 간선 도로를 퍼레이드하는 가장행렬 사이에 촛불을 켜 청사초롱을 들고 따르던 학생들 무리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간혹 청사초롱이 크게 흔들리면 순식간에 불이 붙어 양상한 철사 가지만 들고 걷던 기억도 납니다.

1984년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군점 행렬 일원으로 삼도수군 통제영의 수군이 되어 창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고, 여객선터미널에서 합관으로 열기설기 거북선 모양으로 꾸민 유람선을 타고 한산도 제승당 앞바다를 둘러오기도 했습니다. 군관복을 입고 칼을 찬 장수로 뽑혔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담당 선생님께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호위하는 군관들은 키 큰 순으로 뽑아, 칼을 차고 수염까지 붙인 친구들의 모습이 부럽기만 하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산대첩축제는 학창시절 재미있었던 추억으로서 마무리될 것이라 여겼는데, 어느 순간 그 일을 도모하고 주도하는 위치에서 오랫동안 함께하게 될 줄은 미처 상상해 보지 못했습니다. 해양소년단이라는 직장에 첫발을 디디고 나서부터는 거의 30년 가까이 통영한산대첩축제의 여러 일들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해양소년단 단원들을 인솔하여 그 당시는 생소한 해양레저 장비를 수레에 싣고 시내 퍼레이드로 시작되었던 행사는, 중앙시장 백천세탁소 앞 젊음의 광장 운영, 군점 방포 연출, 카누 해상퍼레이드, 청소년 모형거북선 만들기대회, 문화마당과 강구안에서 개최되었던 해군참모총장배 해양레저스포츠대회, 한선 노젓기 대회, 읍면동 대항 거북배 노젓기 대회, 수책 부교 설치 등 다양한 부분으로 확대되었고, 통영한산대첩축제의 대표 행사로 손꼽히는 한산대첩 재현 행사까지도 맡아 부족하지만 맡은 역할에 최선을 임해 왔습니다.

이제껏 진행하였던 많은 행사들 중에서도 가장 기억나고 애착이 가는 행사를 하나만 손꼽으라 하면 당연히 한산대첩 재현 행사입니다. 처음부터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무난하게 이어온 행사였다면 이렇게 선뜻 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작부터 우여곡절이 많았고 지금까지 소개되지 못한 여러 준비 과정들과 실제 현장 속에서 일어난 예상치 못했던 해프닝 등 한산대첩 재현 행사는 지금도 완성이 아니라, 미완의 단계에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선에 놀라 뒤로 빼는 거북선

한산대첩 재현행사는 1999년 10월 1일 오후 6시 강구안 해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해안 일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많은 승전지 중 해상에서 전투 재현을 최초로 시도한 곳은 고성군으로서 1998년 제1회 당항포대첩축제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해전 재현에 동원할 적절한 선박들이 많지 않아 통영 지역의 선박들이 대부분 용선되었으며, 당항포대첩축제의 해전 재현 행사는 선박 확보의 어려움으로 그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행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듬해 제38회 한산대첩축제에 당시 한산대첩기념제전위원회 최정규 사무국장님의 제안으로 한산대첩 재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 행사에 사용된 선박은 PE폰톤으로 조립한 부선의 중앙을 비워 소형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를 넣어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거북선과 관옥선을 각 한 척씩 만들었으며, 굴채묘 운반선을 합판과 현수막 등으로 둘러 왜장선도 만들어 세 척의 선박으로 해전 장면을 재현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해전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거북선 제작이 늦어져 행사 당일 오전까지도 작업이 진행되어 제대로 된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이 실전에 바로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였습니다. 10월 4일 지역의 S신문 기사에는 “왜선에 놀라 뒤로 빼는 거북선”이라는 제목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북선의 사진과 함께 큰 기대를 안고 구경나온 오전여 명의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대실망을 안겨주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기사가 게재되기도 하였습니다. 어쩌면 삼십 년 가까이 한산대첩축제 속 현장에서 미력하나마 기여도 해왔지만, 한산대첩축제의 관록에 흠집을 낸 이력도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시행착오가 한산대첩축제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제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었으니 통영한산대첩축제는 저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교육의 장이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영화 특수효과와 대부도 실전 상황에서는 준비하고 지시하는 뜻대로 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산대첩 재현은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꾸민 이벤트 행사로 보는 것이 적절한 소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전 재현에 참여하는 100여 척 이상의 선박을 옛날 전선이나 병선으로 꾸미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쉽지 않아, 현대의 해경 함정이나 어선에 깃발만 장식하여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을 구분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가지고 기대하는 전투 재현은 실제 화살이나 대포를 쏘기는 어렵기에 각종 꽃불화약류와 연막탄, 신호 홍염 등을 이용하여 연출합니다. 초창기 모든 재료들은 일반인들도 쉽게 구매할 수 있었고 사용하는 데에도 큰 제약이 없어서 약류 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재료들을 거북선 캠프 강당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연출에 필요한 형태로 개조하는 작업을 일주일 이상씩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허가된 전문 화약업체에서만 구매와 사용이 가능하기에, 전투 재현 부분은 전문 화약업체와 협의하여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설치도 쉽지 않은 준비과정 중 하나입니다. 경비 구난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해경 경비함정과 생계를 위한 어업활동을 끝마친 뒤에야 집결이 가능한 선박들이기에, 행사 전날 오후쯤이나 시작되는 설치작업은 어떤 때 행사 시작 시간 직전까지 이어지는 늘상 시간을 다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간에 쫓겨 작업이 진행되다 보면 밤샘 작업은 기본이고 다닥다닥 뱃머리를 붙여 정박된 선박에서 선명조차 찾기 어려워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의 연출 화약이 서로 뒤바뀌어 설치된 적도 있었습니다. 화약을 발사하는 방법도 초창기에는 라이터로 일일이 심지에 불을 붙여야 해 많은 위험이 따랐고, 실제 화약심지에 불을 붙인 화약이 뒤로 터진 불량제품으로 인해 자원봉사자가 화상사고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무선으로 발사 뇌관을 점화시키는 장치로까지 기술이 발전되어 위험요소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바다 위를 이동하면서 파도에 흔들리는 좁은 선박 위에서 진행되는 화약 연출은 행사가 모두 무사히 마칠 때까지는 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슴 졸이게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실감나는 전투 재현 장면에 익숙한 분들은 기존의 전투 재현 연출이 늘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구도 많이 받게 되고 때로는 제안된 내용들을 실제 적용해 보기도 합니다. 한번은 한국영화의 특수효과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할리우드에서 기술을 배워 오시고 그 분야에서는 대부라고 불리는 분께 전투 재현 부분을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장면만 촬영하여 편집하고 때로는 컴퓨터로 처리된 영상을 활용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현장에서 생중계되는 스포츠경기처럼 변화무쌍한 해상의 실전 상황에서는 본인도 준비하고 지시하는 뜻대로 연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무전기에 대놓고 욕을 퍼붓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통영한산대첩축제의 백미인 한산대첩 재현 행사가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짧은 지면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숨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가슴 뭉클한 기억들이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며 새로운 감동을 위한 준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의 노력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산대첩 재현의 진짜 주인공은 429년 전 뜨겁게 작열하는 태양 별 아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싸우신 조선 수군의 후예이자, 행사 날 온종일 바다 위에서 수고하시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는 바로 통영해양경찰과 우리 어민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한국해양소년단 경남남부연맹 국장, 전) 재단법인 한산대첩기념사업회 이사

서울 향인들의 1박2일 한산대첩축제와 함께한 통영여행기

선기화

한산대첩기념사업회 상임이사님이 전화를 하셨다. 56회 한산대첩 행사에 서울 향인들 같이 올 수 있겠냐고, 숙박과 이동 프로그램은 준비해보겠다 하셨다. 2015년 7월에도 상임이사님의 제안으로 <찾아오는 한산대첩 프로그램>을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도와서 진행하려 했었다. 당시 나는 서울 한복판에서 반갑고 정겨운 행사일 거라 생각하여 세병관과 강구안 풍경이 있는 그림엽서를 제작하여 재경향인들에게 손글씨 엽서를 보내기도 했으나, 아쉽게 큰 비로 취소되어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를 만회할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더구나 2017년은 재경통영중고동창회장을 맡아 첫 체육대회를 5월 21일 한강 용산 거북선 나루터에서 <통영뱃놀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했고, 동창회 기수 대항 드래곤 보트 경주대회를 진행하여 우승 기수에게 2백만 원 상금도 전하였다. 그 후속 프로그램으로 고향에서 열리는 한산대첩축제 시민참여 프로그램인 <한산 수군 노젓기 대회>에 참여하는 것도 서울과 통영을 잇는 의미 있는 연계가 될 것이라 기대도 되었다.

해당업무 과장님의 제안서를 보니 <생생문화재 이순신학교>라는 명칭으로 서울에서 버스로 출발하여 충렬사 세병관 제승당 핵심 순례 코스와 결합되어 있고, 동원리조트 숙박 장소 또한 충분히 배려되어 가족 단위 행사로 더없이 좋겠다 생각하여 가족 단위 참여로 모집을 진행하였다. 서울에 살며 살갑게 동문들끼리 지내왔고, 체육대회나 야유회 때 가족 단위로 만나긴 했지만 동기 가족 정도이지 선후배 또는 모르는 이웃과 같이 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다음 세대 아이들도 같이 가며 통영을 야무지게 보여주고 설명하는 만큼이나 매끄럽게 운영할 수 있을지조차 모집을 제대로 될지 걱정스러웠다.

8월 11일 이른 아침시간 양재시민의 숲 주차장에서 통영고 41회 가족을 포함한 35명의 재경향인가족들이 버스에 탑승했다. 한산대첩축제의 절정의 시간 정오경 해방다리쯤 비를 맞으며 버스에서 내렸다. 재단 사무국 담당자들이 반가이 맞아주셨고, 한려숯불구이라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통영에 와서 돼지갈비라니 하는 의아함은 바로 사라졌다. 아이들 배려하여 불고기와 함께 된장국 약간의 회가 정갈히 준비되어 있었다. 인솔단 현지 가이드를 맡으신 조복연, 정태식 선생님도 인사를 나누고, 비웃을 나눠 입고, 충렬사를 그리고 서문고개 넘어 삼도수군통제영의 객사 세병관을 방문하였다. 나는 같은 시간 문화회관에서 진행되는 학술제도 참관할 수 있었다. 동원리조트로 숙소를 미리 배정받고 자유 시간을 갖고 동기들과는 거북선 노젓기 현장을 파악하기도 하였다. 이중섭식당이라 이름 붙여진 향남동 통영식당에 다시 모여 저녁식사를 했다.

이른 아침 노젓기 대회에 재경통영중고 붉은 깃발을 들고 개회식 참여했다. 김동진 시장님도 반가웠고, 김미

옥 시의원, 강석주 선배님도 반겨주었다. 우리 <재경통영고팀>은 예선 1차전 경기에 참가했으나, 제 코스를 빗겨 나와 실격 처리되어 예선 탈락하였다. 서울대표라는 게 무색하게 쓸쓸히 물러나야 했고, 보는 이들에겐 한바탕 웃음거리를 선사했다. 20여 명의 사람이 호홉 맞춰 노젓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참여한 팀 모두 관록을 가진 팀이고, 순간 급조해서 하는 게 아닌데 그저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고 왔을 뿐이다. 아침에 흐린 날씨가 쾌청해지더니, 배를 타고 한산도 제승당으로 가는 일행은 더위를 걱정하게 된다. 하지만 한산도 제승당으로 가는 오솔길은 늘 그들을 제공해 주었다. 해설사님의 상세한 설명만큼이나 한여름의 그날의 합성을 시간에 맞춰 생각해보는 계기도 되었다.

유람선터미널 맞은편 통영식당에서 통영정식으로 식사하게 되었다. 찜밥도 있고, 생선구이도 있어 적절했다. 우리는 일정에 더하여 조복연 해설사님의 배려로 미륵산 케이블카를 타는 행운을 누렸다. 참석한 가족 중에는 홈스쿨링을 하는 가족이 동행했다. 전국을 많이 돌아다니며 아이와 느끼려고 하는데 통영이 제일 흡수력이 높다 한다.

짧다면 짧은 프로그램이지만 누구나 갔었을 고향의 순례 코스이지만 그 고향의 역사의 정수를 느끼는 곳을 정하고 순례하긴 나도 처음이다. 직장의 동료들, 선생님 여러 그룹들과 통영에 놀러 왔지만, 통영의 정신을 통영의 총체를 제대로 보여 주려 했던 이 코스를 따라 밟은 것은 처음이다. 나는 인솔자이기도 하지만, 구경꾼이고, 나의 고향이긴 하지만 또 내가 아닌 우리의 축적된 문화가 타향에서 커 온 사람들에게 보여 주어야 하는 시간이었다.

* 전) 재경통영중·고동창회장, 전) 우리금융그룹 감사실장

통영한산대첩축제 60년사 편찬에 즈음하여

이 강 용

통영시 산양읍 달아에서 태어나 1975년 10살 때까지 봉전(세바지)에 있는 화양국민학교(현 초등학교)를 다니며 살다가 그해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때 충렬국민학교(현 초등학교)로 전학을 왔다.

한산대첩축제가 1962년부터 시작을 했으니 13년 후인 1975년도에 한산대첩을 처음 구경했다. 그때는 각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했던 가장행렬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이후 내가 1985년에 통영오광대보존회에 입문하여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산대첩축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중 많은 행사들이 있었다. 군점을 비롯 가장행렬, 해병대 군악대 시범, 음복주점, 불꽃놀이 등 수많은 행사들이 있었지만 내가 한산대첩과 함께해 온 일을 나열해 보면 1990년 사회 문화패인 놀이패 새터를 창립하여 활동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한산대첩축제와 함께하게 된 것 같다.

그 당시에는 가장행렬의 행사에 투입되어 행사 참여를 하고 즐기면서 활동을 전개해 나오다가 2000년 여름 축제로 옮겨지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 세월이 벌써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두 번이나 지난 21년 세월이 지나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세병관에서 군점을 끝내고 거리 행진 때 120여 명 풍물패가 이순신 장군 행렬 마지막에 붙어 거리에 나온 시민들과 함께 축제의 서막을 올리는 흥겨운 판을 만들어 낼 때는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여름 축제에서 볼 수 있는 땀으로 범벅된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 벅차 오릅니다. 학생들과 어른이 함께 풍물을 치면서 하나 된 모습으로 축제를 함께한다는 그 가슴 벅찬 일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우묵 한 그릇에 한여름의 더위를 바로 씻어내는 마법도...

그리고 2021년 한산대첩 재현과 함께 시작된 마지막 날 시민대동놀이에서의 통영 개타령 민요에 맞춰 놀았던 시민대동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2004년 16주 진단을 받고 오른쪽 다리를 전체 깎스하여 행사를 끝까지 해냈던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 납니다. 통영 개타령 민요에 맞춰 놀았던, 시민들에게 통영춤을 만들어 연습시켜 마지막 날 하나된 모습으로 놀았던 그날의 가슴 벅찬 감동은 뭐라 말할 수 없을 드라마 같습니다. 그 후 시민대동놀이에서의 통영 개타령의 통영춤은 없으나 한산대첩축제 대미를 장식하는 풍물놀이는 어느 축제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흥겹고 신명난 대동놀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

서는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습니다. 단순히 보고 즐기시는 사람들은 이런 놀이들이 단순하게 보일지 모르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사람을 모으고 연습시켜 작품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잘 모르리라 봅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축제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이 축제를 좀 더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로 만들 것인가 고민하고 노력해서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기억에 남고 계속 이어져 갔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런 내 고장 통영에 이런 축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축제의 프로그램 중 한산대첩 재현, 한산대첩 출정식, 군점, 이순신 장군 행렬 및 가장행렬, 해군의장대 시범, 해군함정 공개, 24반 무예단 시범 등은 한산대첩축제에 관광객들을 통영으로 오게 하는 대표 프로그램이며 주제 프로그램입니다.

이 중에서 한산대첩 재현은 정말 한산대첩축제에서 떼 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대표적인 축제 프로그램입니다.

예전의 프로그램은 축제와는 조금 동떨어진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축제에 맞는 프로그램들로 짜여져 일반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기면서 체험해 보면서 즐기고 느끼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한산대첩이 일어났던 그 당시의 모습으로 재현한 한산대첩 재현이고, 그리고 수병들이 전쟁에서 무기로 사용한 활과 화살을 가지고 활쏘기를 해 보는 체험활동입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한산대첩 재현은 정말 지역의 민관이 하나 된 모습이 아니 되고는 안 되는 축제 프로그램입니다. 어민들의 어선과 기관선인 해양경찰들의 경비선, 그리고 이듬해인 2002년부터는 서울에서 가져온 거북선의 등장으로 역사적인 재현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경비선과 재현 현장인 이순신공원 해안선에서 터지는 불꽃놀이와 포탄소리들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전술로 쓴 학인진의 한산대첩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정말 가슴 벅찬 재현 행사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발전으로 지금까지 전국의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한산대첩이 그 얼마나 큰 전쟁이며 세계 4대 해전에 빛나는 승리의 해전으로 남아 있는지를 알릴 수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체험 행사와 직결된 행사들은 많이 없었으나 그 이후에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하는 축제의 발전 전략과 수립에 귀 기울이고 시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와 이순신 장군, 해전 등 통영만의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여 지역 축제가 더 발전되어 나가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한산대첩 재현과 체험 활동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전국에서 무형문화재가 제일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통제영과 결부되기에 한산대첩 기간 중에 전통문화예술 공연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제6호 통영오광대, 제21호 승전무, 제82-4호 남해안 별신굿이 공연 행사로 이루어지며, 그리고 기능으로 된 제4호 갓일, 제10호 나전칠기, 제55호 소목장, 제64호 두석장, 제99호 소반장, 제114호 염장은 전시 행사와 체험으로 관광객과 지역민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공연, 전시로 특히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전통문화예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말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아주 풍성하고 뜻깊은 전통문화예술 공연 행사이며, 축제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통영한산대첩축제는 나의 삶과 함께해 온 축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산대첩축제의 역사는 곧 나의 역사인 것이다. 처음에는 보고 듣고 즐기면서 자라왔고 이제는 행하고 즐기면서 통영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주면서 즐기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로 내가 배웠던 것을 풀어내고 뱉어가고 있습니다, 한산대첩축제는 살아 있는 나의 삶의 체험장인 것입니다.

미흡하나마 통영한산대첩축제 60년사에 내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이제는 내고 풀면서 뱉어가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많은 분들과 1962년 제1회부터 2021년 제60회를 맞이하는 올해까지 끌어 오신 많은 분들의 노고와 그리고 100년 이상의 그날까지 계속 이어갈 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 국가무형문화재 제6호 통영오광대보존회 전승교육사, 놀이패 새터 대표

통영에는 느낌표가 맛있습니다

예 혁

얼마 전, 서울에서 열린 자그마한 문학 행사에 참가했을 때, 내가 통영에서 태어났다고 소개하자 한 시인이 이렇게 반응했다.

“고향이 통영인 건 반칙이죠.”

금수저보다 갖기 힘든 건 어쩌면 해(海)수저일 것이다. 바다의 운율을 먹으며 자랄 수 있다는 것은 영혼의 축복이다. 그래서 나의 노력 없이 얻게 된 통영은 아름답게 살아가라며 받은 거대한 생일 선물이다.

나의 ‘통영 종합선물세트’를 언박싱해 보면 가운데에 자리한 것이 한산대첩축제이다. 한산대첩축제는 내 삶에 굵은 느낌표를 남겼다.

통영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이다. 나는 한산대첩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백일장에 참가했다가 감사하게도 큰 상을 받았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를 포함한 전체 장원을 수상한 것이다.

대회에서 제시한 시제는 ‘충렬사’였다. 하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충렬사가 이순신 장군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세세히 들여다본 적은 없었다. 그래서 시작(詩作) 대신 한참 동안 충렬사 경내를 천천히 거닐었다.

제일 안쪽에 위치한 정당(正堂) 뒤편 대나무 숲 너머엔 내가 태어난 망창골이 있다. 내삼문 아래로 쪽 내려가니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동백나무 밑동에 막 탈피한 곤충의 허물이 거름처럼 놓여 있었다. 나는 뜰 안의 잡풀들마저 경건해 보이는 공간을 느릿느릿 종이에 담았다. 그리고는 대회 마감 시간 직전에 거의 꼴찌로 글을 제출하였다.

한산대첩 백일장 장원이 되면서 꼴찌 같던 나의 일상이 달라졌다. 지역신문에 내가 쓴 시가 실렸고, 전교생 앞에서 조회시간에 시를 낭독하기도 했다. 동글동글하게 생겼다고 담임선생님이 몽돌이라는 별명을 학년 초에 내게 지어주셨는데, 그간 무인도의 몽돌처럼 존재감이 없던 학교생활을 보내다가 백일장 이후로는 나를 보고 먼저 웃으며 인사하는 이들이 생겼다. 그리고 입상한 시의 제목인 ‘충렬사’는 나의 새로운 별명이 되었다.

한산대첩 백일장의 시상식은 요즘은 통영시립박물관으로 사용되는, 당시 통영군청 건물에서 열렸다. 부상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이상화 시인의 시집 『오라 마돈나, 나의 침실로』였다. 영화 『나 홀로 집에』를 학교에서 단체 관람한다고 했더니 야한 영화 아니냐고 걱정하셨던 어머니가 이번에는 시집의 제목을 보시고는 어린이가 읽어도 되는 책이냐고 내게 물었다. 덕분에 혹여나 기대하는 구절이 나올까 열심히 시를 읽었다. 두 번째

부상은 작은 패종시계였다. 똑딱똑딱 박자를 만들며 짧은 추로 제 갈 길을 가는 시계를 방에 걸어 두고 시간의 흐름을 응시하곤 했다. 그러다 보면 시계추의 진동이 노를 젓는 듯이 느껴졌다. 노가 움직여야 시계는 제 구실을 한다.

시집과 시계는 나의 시절을 영글게 했다. 시집에서 문장을 낚아 시계 바늘로 콕 찍어 맛있게 먹었다. 그러자 느낌표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통영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문예부장을 맡아 학교 교지를 편집했고 대학에서는 문학동아리 활동을 했다. 그리고 현재는 문학을 닮은 노래를 쓰고 싶어 작사·작곡가로 일한다.

아직 부족함이 많은 작곡 실력이지만 누구나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서 내가 이따금 주최하는 창작 강좌의 제목은 〈일상에 작곡 더하기〉이다. 집-직장-집, 집-학교-집, 집-집-집의 반복 사이에 느낌표를 넣을 수 있는 활동이 삶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이 모토이다.

나는 한산대첩축제가 그런 느낌표를 통영사람들 생활에 크고 작게 세워 왔다고 생각한다. 축제는 돈벌레 바이러스가 창궐한 세상에서 시민과 문화 활동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두기를 고리두기로 바꿔낸다. 또, 옆집은 있지만 이웃은 없는 시대에 마을의 연결고리를 잇기도 한다. 몽돌인 줄만 알았던 내 안에서 맑은 소리가 난다는 것을 축제가 일깨웠듯이, 그 소리 덕분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듯이 말이다.

한산대첩이 전쟁에 맞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기획이듯이 한산대첩축제도 오늘날 전쟁 같은 우리 삶의 평안을 기획하기를 기대한다. 생의 큰 기동마냥 우뚝한 느낌표들로 학익진을 펼쳐 불행들에 맞서 싸우는 지략이 필요하다.

* 작사·작곡가 / 에세이 작가

